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51호

Thursday, July 31 2025 A

“엡스타인과 20년전 관계 단절”

트럼프, 관계 끊은 이유 상세히 설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자신의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버지니아 주프레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미 20년 전에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엡스타인과 수십 년간 지속된 관계를 끊은 이유와 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2019년 구금 중 사망했다. 당국에서는 그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 성범죄를 폭로했던 피해자 중의 한명이다.

2016년 주프레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10대 청소년 시절인 2000년 트럼프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권유로 여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었다. 당시 스와 탈의실에서 근무했는데 엡스타인 측근 기슬레인 맥스웰이 접근해와 돈과 여행경비 등으로 유혹해 성착취 범죄 희생양이 됐다. 맥스



버지니아 주프레(오른쪽, 당시 17세)가 2001년 영국에서 앤드류 왕자와 사진을 찍었다.

웰은 주프레에게 마사지를 하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엡스타인 일당은 주프레를 성폭행했다. 가해자 중에는 앤드루 영국 왕자 등도 포함돼 있었다. 맥스웰은 미성년자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주프레는 지난 4월 호주의 자택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버지는 타살을 주장하는 등 아직도 의혹

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프레가 우리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악관이 이달초 엡스타인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양 진영 지지자들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해명도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옥채 기자

암호화폐 ATM 규제 사각지대

VA 의회 규제법안 모두 실패

워싱턴 지역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ATM이 빠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ATM은 자금 추적을 피해 검은 돈을 거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통로가 되고 있다. 현재 11개주가 암호화폐 ATM규제를 만들었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은 매년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도 통과에 실패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작년 암호화폐 ATM과 관련한 불만신고가 1만 1천건이었으며 피해액이 2억4670만달러에 달했다. 암호화폐 ATM은 현금이나 데빗카드를 기기에 넣어 현금을 가상인출한 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바뀌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보이스 피싱 등 금융 스캠 범죄 일당들이 피해자들에게 암호화폐 ATM을 사용해 현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해 유인



하거나, 마약 거래 조직의 결제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네브라스카는 신규 고객 1일 회전 한도를 2천 달러, 기존 고객은 1만5천달러로 제한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갈수록 범죄 활용도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암호화폐 ATM 관련 사기 사건이 2020년 이후 9배 이상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암호화폐 ATM을 사용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 취소나 회수가 불가능해, 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김윤미 기자

4일 연속 체감기온 100도 초과 신기록

코드 오렌지 대기오염 주의보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워싱턴 지역 체감기온이 30일(수)까지 나흘 연속 100도를 넘었다.

워싱턴 지역의 최근 낮 최고 체감기온은 101-107도 분포를 보였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이너허버 인근

에서는 29일 한때 실제 기온이 101도, 체감기온이 114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상당국은 워싱턴 일원에 폭염과 함께 코드 오렌지 대기오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드 오렌지 하에서는 오존 수치가 상승해 심장과 폐 건강이 좋지 않은 노약자나 천식과 알러지 등의 질환 보유자는 주의해야 한다.

김윤미 기자

2분기 GDP 3.0% 성장

올해 1분기 역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2분기 들어 성장세를 회복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0%로 집계됐다.

이는 2% 초반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우존

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도 상회했다.

앞서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 관세 부과를 앞둔 일시적인 수입 확대 여파로 0.5% 역성장했다.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 급감한 게 성장률 회복의 주된 배경이 됐다.

정혜정 기자

DACA 수혜자 자진 출국 종용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이하 DACA)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고 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 DACA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중에서 가장 많아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의 DACA 수혜자는 지난 3월 기준 총 52만 5210명에 이른다.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29일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추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어떤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했다”며 “범죄 등 여러 이유로 체포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DACA 수혜자들은 자진 출국을 통해 합법적 방법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법에 따르면 추방 재판에 회부됐어도 자진 출국을 요청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추방 기록 없

이 미국을 떠나기 때문에 이후 합법 비자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방 명령을 받아 강제로 출국하게 되면 추방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인 DACA 수혜자는 총 4560명이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사소한 위법 행위도 주의해야 하고 특히 음주 운전은 중범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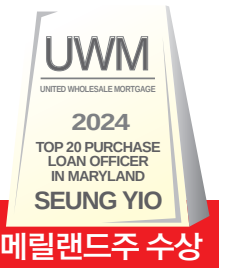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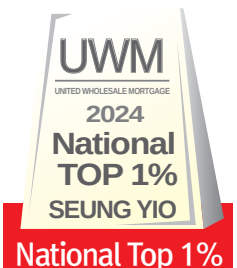
버지니아주 수상



메릴랜드주 수상



조지아주 수상



National Top 1%
2018년 ~ 2024년까지
7년 연속 수상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주미대사관 군수무관 송별·환영식 개최

재향군인회 미 동부지회
이우관·오승진 무관 부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철)는 30일 애너데일 한인타운 소재 중식당 ‘장원반점’에서 이·부임하는 주미대사관 육군무관과 군수무관 송별식 겸 환영식을 개최했다.

8월1일부터 새로 부임하는 인사는 이우관 주미육군무관(대령)과 오승진 국방군수무관(대령)이며, 이날부로 이임하는 인사는 장세근 육군무관(대령)과 김용선 군수무관(대령)이다.

이날 정오 열린 행사에서 김인철 회장은 이임과 부임하는 무관들에게 감사와 환영을 동시에 표했다. 이어 김 회



대사관 무관 이·부임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김인철 회장(우측서 세번째).

장은 지난 3년간 한미 양국의 군사동맹 강화와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준 장세근, 김용선 무관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오승진·이우관

무관은 “세계의 중심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부임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재향군인회가 따뜻하게 맞아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버지니아 내년 1월 최저시급 12.77달러로 인상

버지니아의 내년 최저시급이 12.77달러로 확정됐다. 버지니아 주법에 의해 노동산업부(DOLI)가 매년 미국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근거로 다

음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DOLI는 CPI 2.9%를 반영해 올해 12.41달러에서 36센트 인상해 12.77달러 [12.41+(12.41×2.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토맥강 충돌 군헬기 조종사 부인 번아웃 주장

지난 1월29일 워싱턴DC 포토맥강 상공에서 아메리칸 항공(AA) 여객기와 충돌해 사망한 육군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의 부인이 “납편이 번아웃 증상을 호소했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조사 책임을 맡은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30일(수)부터 사

흘간 진행된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당시 사고로 여객기와 헬기 탑승자 67명이 모두 사망했다. 번아웃 상태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했기 때문에 임무수칙에 어긋나는 비행을 하거나 운행기록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VA 매나사스 시장·시의원 월급 두배 인상 추진

버지니아 매나사스 시티 의회가 시장과 시의원 임금을 두 배 넘게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매나사스 시티 시장과 시의원은

2023년 7월 연봉을 인상해 각각 2만 달러와 1만8천달러이지만, 또다시 4만2천달러와 4만달러로 올리려 하고 있다.

북VA 교육청 동성애 화장실 정책 90일 연장 요청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5개 교육청이 연방교육부에 성적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과 라커룸 사용 규정을 90일 동안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25일 열흘 내 시정을 요구했었다.

연방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이 연방 교육법을 위반해 성적정체성에 기반한 화장실 규정 등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연방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의 요구에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스미소니언 우주왕복선 텍사스 이전 반대 입장

연방의회를 통과한 감세법안에 따라 버지니아의 우주왕복선의 텍사스 이전 전시가 확정된 가운데,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우드바-헤이즈 항공우주박물관 측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물관 측은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텍사스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 8500만달러가 포함돼 있

어도 운송 과정에서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출신 연방상원의원 2명과 여러 풀뿌리 시민단체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텍사스 출신 연방의원들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우주왕복선이 발사됐기 때문에, 원래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옥재 기자

볼티모어 주차된 차에서 여성 사망

메릴랜드주경찰, 조사중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 I-695 하이웨이에 세워져 있던 한 차량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메릴랜드주 경찰(MSP)은 페링 파크웨이 근처 I-695 외곽 순환도로 갓길에

주차된 검은색 지프 랭글러를 점검하던 중 뒷좌석에 누워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에 접근해 노크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출동한 의료진은 확인 결과 사망을 선고했다.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볼티모어 부검실로 이송돼 있는 가운데 30일 현재 여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MSP는 이와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410-780-2700로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자는 익명이 보장된다.

김성한 기자

9월부터 비이민 비자 갱신도 인터뷰

인터뷰 면제 대상 대폭 축소
만 14세 미만, 79세 초과자도

오는 9월부터는 비이민 비자를 재발급할 때에도 예외 없이 대면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국무부는 29일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자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새 정책에 따라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매우 구체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비자 인터뷰가 필수”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이민 비자 신청자, 특히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연한 비자 심사 체계를 적용한 바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국무부는 대부분 비이민 비자 범주를 다시 ‘인터뷰 의무 대상’으로 분류했다. E-1, E-2, F-1, H-1B, J-1, L-1, O-1 등이 모두 비자 인터뷰 필수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신규 신청자는 물론, 기존 비자 보유자 및 갱신자도 예외 없이 대면 인터뷰가 요구된다. 또 이전에는 비이민 비자가 만료된 지 48개월 이내인 경우 새롭게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면 인터뷰가 면제돼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역시 불가능해졌다.

연령 예외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는 만 14세 미만, 79세 초과 비이민 비자 신청자도 무조건 대면 인터뷰를 봐야 한다. 비이민 비자 인터뷰가 면제되는 대상은 외교·공무비자 등 일부

예외 범주에 한해서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공무비자인 경우에도 영사 재량에 따라 별도 사유 없이도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비이민 비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필수 정책이 다시 시행되면 전 세계적으로 인터뷰 대기 적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 갱신 대상자일 경우 미리미리 일정을 파악하고, 본국 여행 계획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자 갱신 과정에서 인터뷰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단순 비자 갱신이라 하더라도 미국을 떠날 경우 꼭 사전 검토를 할 것을 권했다.

김은별 기자

워싱턴 날씨 (°F)

7월 31일(목) 89-70

1일(금)	75-64		4일(월)	81-64	
2일(토)	80-61		5일(화)	82-68	
3일(일)	81-62		6일(수)	81-6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비엔나 새집 지을 땅 \$87만불

H-Mart에서 가까운 곳 0.24 에이커 부엌이 남향인집 워싱턴 베이스트 나옴의 집

그로서리 스페니쉬 마켓 할 자리 알렉산드리아, 2000sf

식당 자리

센타빌 햄버거식당 자리 1928 SF

알렉산드리아 스시식당 자리 3814 SF

메릴랜드 락빌 고가집 자리 6,195 SF

메릴랜드 락빌 스시, 이자카야 자리 4,675 SF

매 매

VA 스텔링, 창고 2,000 SF, 드라이브인, \$660,000

창고 VA 캔들리, 21,000 SF, 주차 45대 나눠서 임대가능, \$ 5,600,000

MD 게이더스버그 교회자리 대략100석 주차 65대, \$ 1,500,000

MD 컬럼비아 사무실건물 7,700 SF, \$ 2,175,000

임 대

VA 리즈버그 데이터센터주변 창고, 3500 SF, 로딩대 1개, 월\$6,500

MD 락빌 식당했던 빈자리, 3800 SF

Reston 오피스 빌딩

\$7,500,000

· 건물면적: 38,510 스퀘어피트

· 대지 면적: 약 3.7에이커

· 딜레스 홀로드 인근, 레스턴 타운센터 및 딜레스 공항까지 차로 10분 이내

· 기업 분사 또는 프라이빗 스쿨로 적합

· 총 주차 공간: 138대 (3.7/1,000 SF 비율) → 직원용 주차 또는 야외 놀이 공간 조성 가능

· 건물 전체: 3층

· 구성: 사무실, 회의실, 개방형 공간 혼합

· 대형 카페테리아 및 휴게 공간, 피트니스 센터, 총 6개의 키친, 야외 피크닉 공간,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대형 창 → 자연 채광과 숲 전망 제공, 개방형 아트리움 계단 + 고속 엘리베이터

· 매매가 기준 평당 단가: \$194.75/SF (신축 비용 대비 낮은 가격)

· 경제성: 매입 시 임대 대비 비용 절감 효과 35% 이상

· 활용성

· 직접 사용 가능

·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추가 수익 창출 가능

· 향후 성장 여류 확보

종교시설 매매

\$4,500,000

· 위치: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

· 대지 면적: 약 30에이커

· 건물 면적: 총 약 18,423 SF (2개 동, 2단계 건축)

· 주차 공간: 98대 (장애인 지정 포함)

· 매각 조건: 현재 상태 "As-is" 매각

· 용도지역: R-200 (주거지역, 예배시설은 기본 허용)

· 세금: 종교 비과세 적용, 물환경 및 폐기물세 포함

· 비용 일부 포함, 전체 "As-is" 매각 조건

이 매물은 예배당, 커뮤니티 센터, 교육기관(학교), 문화 복합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넓은 확장성, 넉넉한 주차 공간, 상업용 주방, 다목적 공간 구조로 매우 실용적인 매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주세요.

Woodbridge 상업용 부동산

\$3,950,000

· 용도: 데이케어 / 사립학교용 건물 \$3,950,000 (평당 \$483.48)

· 연면적: 약 8,170 SF

· 준공연도: 2012년

· 총 층수: 1층

· 총 주차 공간: 40대

· 장애인 접근성: 메인 레벨 출입 가능, 낮은 욕실 거울 등 설치

주택 구입후 인테리어 디자인/공사 컨설팅 해드립니다

주택 빌더 소개해 드립니다

연재, 어디서든 만났지 리소팅 성공하셨습니다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 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 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나도 혹시 카푸어?

차량 잔존가치보다 융자액 많은 미국인 많아

온라인 차량 판매 사이트 에드먼즈닷컴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 차량 소유주의 26.6%가 현재 소유한 차량 잔존가치보다 융자액이 더 많았다.

지난 2분기 잔존가치를 초과하는 평균 차량융자액은 6754달러로 전년 동기 6255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중 23.4%가 1만달러, 77%는 1만5천달러 이상의 초과 융자액을 지니고 있었다.

이같은 차량 소유주의 월 평균 융자 상환액은 91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월 융자 상환액이 1천달러를 넘는 경우도 17.8%로 최고기록을 세웠다.

사실상의 ‘강통 차량’ 소유주들이 융자를 모두 상환하기 전에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트레이드-인을 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새로운 차량 융자에 기존 차량융자 미상환액을 덧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낮아지고 융자 상환 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30년전만 해도 차량 융자 기간은 보통 4년이었으나, 2분기 현재 7년(84개월) 융자 건수가 전체 신차 매매의 22.45%로 역대 최고기록을 다시 세우고 있다.

작년 2분기는 17.6%였다.

3대 크레딧 리포팅 기관 중 하나인 엑스퍼리언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올 1,2분기 최상위 크레딧 점수 보유자의 평균 차량 융자 이자율은 5.18%였다. 하지만 크레딧이 좋지 않은 구매자는 15.81%의 이자율에 직면했다.

크레딧 점수가 낮을수록 강통 차량 소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융자없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융자 상환이 끝난 후에 기존 매월 상환액을 세이빙 형태의 계좌에 계속 납입하고, 차량 구매액에 도달했을 때까지 차량구매를 미루는 방법이다.

김옥채 기자

버지니아대학차기 총장 공모 시작

버지니아대학(UVA) 이사회가 신입 총장 인선을 위해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버지니아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UVA는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가 지명한 이사가 주의회 승인을 얻지 못한 만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이사회가 신입 총장 인선작업을 진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영킨 주지사는 켄 쿠치넬리 전 버지니아 검찰총장을 UVA 이사로 지명했으나 의회 인준에 실패했다. 이 밖에도 조지 메이슨 대학과 버지니아 군사대학의 지명 이사회도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콧 서로벨 버지니아 상원다수당 대표는 “버지니아 주립 대학 이사회들은 대체로 준법 정신이

희박하다”면서 “이미 순회법원 재판부가 이사 지명을 잠정 보류한 만큼 이들이 포함된 이사회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 라이언 전 UVA 총장은 연방당국이 인권법 위반 조사에 돌입하고 연방정부 보조금 감액 등으로 압박하자 자진사퇴했다.

민주당 측은 조지메이슨 대학도 UVA처럼 진보적인 총장을 퇴임시키고 보수적인 인물로 대체할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킨 주지사는 주의회가 다시 소집돼 모종의 결론이 날때까지 8명의 지명직 이사들이 계속 이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최근 민주당 측의 가처분 결정이 인용됐다.

메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옥채 기자

“잘해봅시다!” 신입 이사회·집행부 상견례

재미한국학교 워싱턴협의회

이달부터 시작된 제10대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 이사회(이사장 한연성)는 29일 집행부와 상견례를 갖고 하반기 주요 행사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를 가졌다. 이날 오후 6시 애난데일에 있는 한강식당에서 가진 모임에서 이사회집행부 임원들에게 위촉장 전달식도

있었는데, 봉사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정현숙·권명원 부이사장, 이경희 총무이사, 성혜숙 재무이사, 김혜경·장영란 감사이사, 문일룡 자문이사 등이다.

정광미 회장과 한연성 이사장은 집행부와 이사회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힘을 모아 협의회는 물론이고 학생과 교사들이 다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한 기자

여름철 범죄 피해 ‘예방·대응’ 세미나 성료

버지니아한인회 주최 교통·가정폭력 등 중심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덕만)는 29일 알렉산드리아 소재 코리아커뮤니티센터 강당에서 재외동포청, 주미대사관, 미주한인경찰협회 후원 하에 ‘인종차별 혐오범죄 및 교통·가정폭력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6시 열린 행사에는 아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김인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장, 이종규 주미대사관 경무관, 김봉주 영사, 조셉 오 미주한인경찰협회 회장 등 주요

내빈과 한인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덕만 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경제적 사회적 침체로 인한 아시안 혐오 범죄 및 각종 범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에 전문가들의 자문 및 지식 공유를 통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한인의 안전과 한인사회 치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행사가 계획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종규 경무관, 조셉 오 회장, 김인철 회장, 김봉주 영사, 아이린 신 의원은 범죄 예방 세미나 개최에 대한 축하메세지를 전했다.

주 강사인 로이 최 미주한인경찰협회 부회장은 버지니아 교통법규를 골자로 과속운전과 스탑싸인, 그리고 스쿨존 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피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필두로 형민사 사건 종류와 차이점, 가정폭력 및 청소년 자녀문제 사례와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앞서 워싱턴총영사관 김봉주 영사는 마약, AI, 딥페이크, 사회재난, 특정 계층 표적 범죄 등에 대해 설명하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심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MD 델마바 지역 순회영사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오는 8월30일(토) 메릴랜드 델마바 지역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순회영사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3시까지 지정 장소(7841 Rockawalkin Rd, Hebron MD)에서 진행된다. 처리가능 업무는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확인,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신고 등이다. 업무별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주미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를 참고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한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하다.

여권 비용의 경우 10년 일반 여권은 50달러, 19세 미만은 52달러, 6세 미만은 33달러다.

문의: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202-939-5653) 안내: 델마바 한인회 (443-876-6787)

김윤미 기자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20년 이상 경력

주택 매매·렌트 전문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영혼의 울림 **송정미** 찬양 콘서트

늘 처음처럼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시간

일시 : 8월 9일(토) 오후 7시: 송정미 찬양 콘서트

8월 10일(주일) 주일 예배 특송

· 1부 예배: 오전 9시 15분 · 2부 예배: 오전 11시

장소 : 버지니아 지구촌교회

14100 Parke Long Ct, Suite K, Chantilly, VA 20151

문의 : (571) 719-2592

**버지니아지구촌교회**
VIRGINIA GLOBAL MISSION CHURCH

커피에 손 든 미국 “커피·코코아 등 무관세 수입 가능”

미국의 기세 등등한 관세폭풍이 커피와 코코아에 한 줄 켜졌다. 이들 기호식품을 관세 면제 대상이 포함할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장관은 29일 CNBC 시사 프로그램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 협정에서는 미국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 원칙은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과의 협정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품목엔 망고, 파인애플, 커피콩, 코코아 열대 등 열대 지역에서 재배된 자원이 포함된다. 러트니는 “EU는 코르크(나무껍질)를 예로 들었는데, 이것도 미국 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지난주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인도네시아 상호무역협정’ 조항에도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일부 품목을 상호 관세를 감축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일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자국 제품을 미국에 19% 관세율로 판매하기로 했지만, 커피·코코아 등 열대 자원은 향후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러트니 장관은 브라질처럼 미국과 아직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열대 자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브라질의 현 정부를 비판하며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



지난 4월 4일 브라질 브라간사 파울리스타에서 커피 수확 중 농장 직원이 커피 열매를 들고 있다.

며 오는 8월 1일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

고한 상태다. ‘납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

선에서 톨라 대통령에게 패한 뒤, 군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의 아군으로 불린 인물이기도 하다.

당초 10%였던 관세가 5배 급증하면서 브라질산 커피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 커피 소비량의 3분의 1이 미국에 공급되는 만큼, 커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최근 매년 60kg(132파운드)짜리 커피 봉지를 약 800만 개나 수출해왔다.

일각에선 미국의 관세 대응책으로 브라질이 미국 농가, 특히 브라질 커피 재배 때문에 배제된 콩 재배 농가에 대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한지혜 기자

뉴욕 총기 난사범, 남가주 풋볼 유망주였다

NFL 본부 겨냥 범행 계획한 듯 엘리베이터 착오로 다른 층에 경관 포함 4명 사망, 1명 부상 부친은 과거 LAPD 소속 경관

뉴욕 맨해튼 중심부 고층 빌딩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과거 남가주 지역에서 촉망받던 고등학교 풋볼 선수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범당국은 현재 건물에 입주해있는 내셔널풋볼리그(NFL) 본부가 주요 표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뉴욕타임스, CNN,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범인은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던 27세 흑인 남성 셰인 데본 타무라(Shane Devon Tamura)로 밝혀졌다. 타무라는 지난 28일 오후 6시 28분쯤 맨해튼 미드타운의 ‘345 파크 애비뉴’ 빌딩에 들어가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한 타무라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3쪽 분량의 메모가 발견됐다. 해당 쪽지에는 타무라 자신이 만성 외상성 뇌병증(CTE)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NFL이 선수들의 머리 부상 위험성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NFL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후 자신의 뇌를 연구해달라는 요청도 쪽지에 남겼다.

타무라는 과거 샌타클라리타 카운티의 골든벨리 고등학교와 샌퍼난도



■ 28일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오피스 빌딩 총격 발생 직전, 라이프를 든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건물 외부 CCTV에서 캡처된 것으로, 경찰 당국이 공개한 자료다. ■ 28일 저녁 뉴욕 맨해튼에서 4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시민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있다. [로이테]

밸리의 그라나다힐스 차터스쿨에서 풋볼 선수로 활약한 바 있다. 고교 시절 뛰어난 기량으로 주목받았지만, 대학이나 프로 무대 진출에는 실패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당시 동료와 지도자들은 그를 “집중력 강한 선수였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면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뉴욕경찰국(NYPD)은 타무라가 정신 질환 이력이 있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의 부친은 과거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29일 타무라의 부친 테렌스 타무라가 지난 1967년 LAPD에 합류해 풋볼, 데본서 등 지역

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범행 당일 타무라는 NFL 본부가 입주한 5층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그가 엘리베이터를 잘못 탑승해 NFL이 아닌 건물 관리업체 루던 매니지먼트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사망자는 4명으로 루던매니지먼트 직원을 포함한 NYPD 소속 비번 경관 디다를 이슬람(36), 건물 로비 경비원 알랜드 에티엔(37), 세계 최대 사모펀드사 블랙스톤 소속 부동산 부문 임원 웨슬리 르파트너(41) 등이 숨졌다. 부상자는 NFL 직원으로 알려졌다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경준 기자

가족과 생이별... 박세준씨 돕자

법적 비용 마련에 지인들 청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자진 출국을 선택한 미 육군 출신의 한인 영주권자 박세준(55)씨를 돕기 위해 지인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는 지난 28일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박세준을 집으로 데려오자’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박씨의 40년 지기인 테리 라폰테가 게재했다.

라폰테는 “그는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이후 14년간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서 그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청원글을 통해 “변호사 비용 지원으로 기부된 모든 기금은 박 씨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것이며, 목표액을 초과한다면 이는 참전 용사와 이민자 법률 지원 단체에 기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박세준 씨를 돕기 위한 고펀드미 계정. [고펀드미 캡처]

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현재 이 청원에는 총 16명이 기부, 총 1612달러가 모였다. 목표 금액은 5만 달러다.

박씨는 현재 하와이에 사는 가족들과 홀로 떨어져 서울에 머물고 있다. 한국어가 서툴러 적응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부는 고펀드미 웹사이트(www.gofundme.com/f/bring-our-hero-sae-joon-park-home)를 통해 가능하다.

송윤서 기자

한인 여성, 일가족 탄 차량 고의 충돌

20대 한인 여성이 일가족이 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 지역매체 퍼시픽 데일리뉴스는 김나우(29)씨가 지난 24일 이 지역 3번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타고 있던 차량과 고의로 충돌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이를 멈추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당시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타고 있었다”며 “김씨의 차량이 공격적으로 접근해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여러 번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기소장에는 김씨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속도를 줄였고, 이에 피해자는 차선을 바퀴 추월했다. 이후 김씨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송영채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한국 관세협상 질문에 트럼프 “오늘 안 끝난다”

취재진 질문 뒤섞이는 상황서 답변 ‘한국’ 특정한 것인지는 불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한국에 더욱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난 27일 스코틀랜드를 찾아온 한국 정부와의 협상 때 ‘최선이자 최종적인(best and final)’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왔다. WSJ은 “러트닉 장관이 당시 한국 정부 인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때는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bring it all)’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 파트너와 이미 다수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는 “미국과의 합의 가격은 지금 명확하다. 완전한 시장 개방”이라고 했다.

이에 지금까지 제시된 한국 협상 카드를 놓고 미국 내에 다소 불만족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를 기존의 ‘100억+α’에서 배 이상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측이 제시하는 ‘한·미 제조 협력’ 카드도 중요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 국민에게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숫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EU·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 무역 합의를 마쳤다.

특히 일본·EU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고, 향후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에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이익을 피하려면 관세를 15% 이하로 낮추는 것이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15%를 관세 하한선으로 못 박은 상황이어서, 이조차도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 카드를 내밀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스코틀랜드 방

문을 마치고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복귀한 그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앞다퉈 질문을 외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일 무엇을 끝낸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해당 기자가 “관세”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관세 협상 전반에 대한 언급인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특정해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물리적인 시간 자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스코틀랜드 순방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무역협정은 훌륭하다. 우리는 부유한 미국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2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EU에 관세 15%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를 이뤘다.

김형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스코틀랜드 방문 뒤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 정치국회의 “20기 4중전회 10월 개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30일 월례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개최를 결정했다. 4중전회에서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대한 당 차원의 건의안을 연구·제정한다고 관영 신화사가 보도했다.

지난 21일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른바 ‘우량한 전통을 강력히 장려하고, 부패세력을 철저히 척결하며 정치 간부의 이미지와 위신을 회복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홍콩 매체들이 전망했던 낙마한 마오화(苗華) 전 정치공작부 주임의 부패 사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

다. 다만 “회의에서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고 밝혀 마오화 안건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권력서열 24위 수뇌부가 모이는 월례 정치국회의는 205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해마다 7월 정치국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제 실적을 검토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자리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당 중앙의 정책 결정의사 협조기구 설립”을 발표한 뒤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해석과 함께 4중전회 발표가 미뤄지면서 7월 정치국회

의가 더 큰 시선을 끌었다.

이날 신화사 발표에 따르면 20기 4중전회는 예년의 5중전회에서 논의했던 5개년 계획 건의안 심의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15·5 기간(2026~2030년) 중국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한다”고 전망하며 “자기 일을 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격렬한 국제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 국면에 관련된 전략적 임무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향후 5년간 미국과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경진 기자

경제 불확실성 10명 중 7명 “은퇴 미룬다”

50세 이상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은퇴시점을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및 연금사인 F&G 어뉴이티스 앤 라이프가 최근 5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70%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금융불안에 은퇴계획을 이미 미뤘거나 미루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전체의 23%는 은퇴시점을 확실히 늦췄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4%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은퇴를 미루겠다고 답한 이들 중 절반(50%)은 금융 불확실성과 경제 변동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증

가한 비율이다.

이어 48%는 은퇴 후 자금부족 우려를 골랐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든 비율도 44%나 됐다. 42%는 더 많은 금융적 선택지와 안전망 확보, 경기침체나 주식시장 하락 가능성을 우려한 이들의 비율은 34%로 조사됐다. 관세 등 물가상승 우려에 이미 은퇴한 사람 중에서도 29%는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X세대 초기 은퇴자들 가운데 54%가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28%)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훈식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풀인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락조 물)
웨일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일본 “200만명 대피를” 러 강진이 깨운 ‘쓰나미 트라우마’

러 캅차카반도 규모 8.8 초강진
‘7월 대지진설’ 일본 불안감 확산
홋카이도~오키나와 쓰나미 경보
공항 활주로 폐쇄, 철도 운행 중단

“동일본 대지진 당시 기억이 떠올라 무서웠다.” 30일 X에 이런 글이 대거 올라왔다. 이날 오전 8시 25분 러시아 극동 캅차카반도 부근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태평양연안 지역에 종일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다.

총무성 소방처에 따르면 전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대피 지시를 받았다. 공항이 일시 폐쇄됐고, 철도 운행도 중단됐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2만여명의 목숨을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방심해선 안된다” “지진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는 위기와 불안감이 일본 열도를 뒤덮었다. 가뜰이나 7월 대지진 설이 나온 와중에 발생한 쓰나미 경보였다.

지진 발생 2시간 반 만에 홋카이도에 30c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했다. 도쿄와 요코하마 등 수도권에서도 20~30cm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이지만, 이렇게 넓은 지역에 종일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일본 방송사들은 종일 임시 재난방송을 편성하며 대피를 촉구했다. 이날 일본 곳곳에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났다. NHK의 아나운서는 “더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 대피 중 자택으로 되돌아가다 희생된 사람들이 있다. 절대 되돌아가지 말라. 충분히 수분섭취를 하면서 대피해달라”고 호소했다.

쓰나미는 1진보다 2진, 3진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이와테현에서는 지진 발생 5시간 반 만에 1m30cm의 쓰나미가 들이닥쳤다. 지바현에서는 바다에서 강으로 파도가 역류하는 모습이 포착돼 14년전의 참사를 상기시켰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10분 후 총리 관저에 정보 연락실을 설치하고 정보 수집에 나섰다. 지자체와 교통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각 자치체는 방재 무선으로 대피명령을 내려 많은 사람이 고지대로 이동하거나 지자체가 마련한 대피소에 머물렀다. 90대 남성이 대피 중 열사병으로 응급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4명 발생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덮친 센다이 공항은 재빨리 활주로를 폐쇄했다.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역이나 신주쿠역에서도 해안가로 향하는 철도는 운행이 중단됐다.

인기 관광지인 가마쿠라를 달리는 에노시마 전철도 전 노선이 운행 중단됐다. 가마쿠라는 시청과 시의회를 개방해 임시 대피소로 사용했다. 각지의 수족관과 해수욕장도 영업을 중단됐고, 편의점도 약 800개 매장이 일시 폐쇄됐다.

기상청은 최소 하루 이상 쓰나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때 마침 이날은 호고현에서 관측 사상 최고인 41.2도를 기록했다. 31일에도 쓰나미, 더위와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러시아 사할린에 쓰나미 침수 30일 러시아 캅차카반도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사할린 지역 세베로쿠릴스크가 침수된 모습. 러시아 당국은 이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본 방송에선 최대 30미터의 쓰나미가 예상된다(작은 사진)가 나왔다.

“이란 핵과학자 망명작전도 척척”…각국 ‘AI 요원’ 경쟁

이스라엘, 하마스 타격 때 AI 활용
명중률 높고 인력·시간 단축 효과

이란 내 핵 과학자의 가족 정보, 재정 능력은 물론이고 이념 성향, 체제에 대한 불만 수준을 분석한다.

망명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을 추린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접근해 핵 과학자의 신뢰를 얻고 설득해 탈출 지원까지 한다. 정보기관이 인공지능(AI)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29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해본 시나리오다.

각국 정보기관들이 AI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첩보전에서 ‘AI 요원’이

활약하는 미래도 멀지 않다. 실전에서 활용됐다는 증거도 있다.

이스라엘 언론 +972 매거진은 지난 1월 “이스라엘군의 챗GPT 사용량이(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 이후 20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고위 지휘관을 정밀하게 암살할 수 있었던 것도 AI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출신의 개발자를 섭외해 만든 AI ‘라벤더’는 하마스를 타격할 때 표적을 제시하는 참모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성과 감청 등 데이터로 표적을 식별해내면 드론이 공격을 퍼붓는데, 명

중률뿐 아니라 표적 리스트를 만드는 인력과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컸다고 한다.

그러나 이코미스트는 오픈 AI, 구글, 답마인드 등을 배출한 미국이 첩보전에서는 군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보수적 태도로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은 AI는 자율적 요원이 아니라, ‘젯봇’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인식이 깊다고 한다. 지난 23일 미 정부가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경쟁국과 비교해 미국의 AI 도입 속도를 평가하고 접근방식을 수립하라”고 했지만 뒤늦은 지시라는 말이 나온다.

이근평 기자

미·중 ‘관세휴전 90일 연장’ 잠정합의…베센트 “기술적 문제 남아, 트럼프 승인 받아야”

스톡홀름서 3차 고위급 회담 종료
미국 “전략분야서 중국과 위험 축소”
중국 “양국 경제관계 본질은 원원”

미국과 중국이 3차 무역 협상에서 ‘관세 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확전을 피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양쪽 모두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두 나라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다음 달 12일 만료되는 초고율의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90일 안에 추가적인 회담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은 서로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비치며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측 협상 대표인 허리펑 부총리는 이번

협상에 대해 “미·중 경제무역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며, 본질은 상호이익과 윈윈”이라며 “양측은 경제무역 영역에서 광범위한 공동이익과 광활한 협력 공간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29일 회담 직후 “반도체·희토류·제약 등 전략적인 분야에서는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시킹(위협 축소)을 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을 걸은 것이 미·중 관계다. 벌써 관세 부과 유예 시기에 대한 해석부터 차이를 드러냈다.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은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24%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 측 보복에 대한 유예 조치가 미·중 합의에 따

라 추가로 90일 연장됐다”고 전했다.

반면에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무역 마찰 이후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무역 파트너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위문희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센터(메가+마트)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윈아름(H+mart)과 첼렌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각종 비자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 결혼 이민
- 추방 방어
- 가족 초청 이민
- 망명 신청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

★

★

★

OUR LOWEST PRICE!



JUL. 31ST - AUG. 7TH, 2025

Hello Kitty Set

헬로키티 3종 세트

Wet Tissue 30 Sheets x 3P
+ Soft Roll Tissue 12 Roll
+ Kitchen Towel 12 Roll

Reg. \$34.99 (1 EA/BOX)

\$19.99



범촌식품 포항 발효 물회

포항의 맛 그대로!

1+1+1

Package of three
(물회 2 EA + 다시마 젓갈 1 EA)

LIMIT 2 10.58 OZ X 2 EA/
4.58 OZ X 1 EA/PKG

\$8.99

Sweet & Spicy Cold Raw Fish Soup

다시마 젓갈 무료증정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관세 운명의날 ... “배터리·바이오 투자 보따리도 푼다”

통상 관계자 “고통스러운 협상” 정의선도 위성탄행, 타결 총력전

관세 부과 유예시한(8월 1일)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정점을 찍고 있다. 한국 측은 미국이 구상하는 공급망 구축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협상에 나서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오후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다. 29일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장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했다. 두 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통상 협의에는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단에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당당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 총수들도 워싱턴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 이날 다른 해외 일정을 소화 중이던 정의선 회장은 출장지에서 곧장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한국 협상단과 함께 대미 투자 관련 최종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세 번째 ‘하든카드’다. 특히 정 회장은 지난 3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에 210억 달러 규모의 투

자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한국의 그동안 대미 투자 기여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협상단은 31일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간의 협의 전까지 러트니 장관과 대미 투자 규모와 농축산물 등의 시장 개방 문제 등에 이견을 최대한 좁혀야 한다.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상은 진통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역명을 요구한 통상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일반적인 통상 협상이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미국에 내야 하는 구조”라며 “시작부터 고통스러운 협상이지만, 지속적으로 미국과 접촉해 간극을 좁히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미 투자 규모를 놓고 미국과 의견차가 크다. 미국은 한국에 4000억 달러(약 55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규모를 당초 검토했던 1000억 달러의 2배인 2000억 달러(약 276조원)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쌀·소고기 수입 확대, 정밀지도 반출 등 미국 측이 요구해 온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도 대부분



미국과의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잇따라 미국 워싱턴DC에 집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왼쪽 사진부터)은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관세 협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러트니 장관이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bring it all)”고 말할 정도로, 미국의 압박 강도는 최고조다. 김 실장도 “협상 때는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미국 측의 거센 압박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산업 협력 프로그램



인 ‘마스가’는 미국의 해양패권을 지키기 위한 조선업 기반 재건과 미국 해군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올랐다. 특히 2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을 제외하면 CATL과 비야디(BYD) 등 중국 업체들의 독주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2차



전지 등은 미래 핵심 기술인데, 중국이 이미 지배력을 갖고 있거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우리 주력 상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안효성·오현석·박영우 기자

이번엔 미국상의 노란봉투법 경고

주한유럽상의 이어 공식 입장 표명 “미국기업 한국투자에 부정적 영향 APEC에 어떤 메시지 줄지 고민을” 차·철강 등 국내 13개 협회도 우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3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고민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암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대표이사)은 이날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암참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회장은 “이번 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며 “이번 법안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 대표 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CK)도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동차·조선·반도체·배터리·철강 등 국내 13개 주요 산업 협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사용자 정의 확대’ 조항을 가장 우려했다. 이들은 “자동차·조선 등 국내 제조업은 다단계 협업 구조로 구성돼 있어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형사처벌은 당사자성, 고의, 인과관계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우려를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김수만·최선영 기자

이 대통령 “100조 국민펀드 조성 AI 중심 미래전략산업 투자”

가로등 예산 줄였던 일화 소개하며 “관행적 지출, 과감한 구조조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만들어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향후 20년을 이룰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경제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AI 전환,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했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양극화 극복 방안도 보고했다. 정부는 8월 중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열렸다. 기재부는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 역시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단체장으로 일하며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일화를 소개하며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장원석 기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은 하이, 프로스트미들 2025 새싱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2. 캔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3. 던로링메트로앞 콘도 \$470,000
방 1, 화 1, 1/2 층 오픈 loft 1 835sq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4.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719,000
1베이크러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아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아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테라스, 수영장, 수영장 등)

5. 애난데일 싱글 Under Contract \$69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 3, 화 3, 커모지,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400sqft, 화실 2,312sqft, 0.46acre, SOLD AS IS, 동부세로 토다 신원물이상 전경, 리모델링/투자 가치높음. 395/236/495/195/66

6.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
방 3, 화 2.5, 차고 1, 좋은학군/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Coming Soon

7.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 3, 화 2.5, 차고 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Coming Soon

8. 애쉬번 타운 \$670,000
2012년, 방, 화 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엘리자 공향 Coming Soon

9.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SOLD

10. 센터빌 벅들타운 \$599,900
방 3, 화 2.5, 차고 1, Hmart인근, 29/Braddock/28,66 Active

11.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 3, 화 2.5, 차고 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Under Contract

12. 맥클린 콘도 1.\$300,000/2.\$409,000
1. 방 1, 화 1, 762sqft 2. 방 2, 화 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13. 캔들리 새타운 렌트 \$3,600
방 3, 화 3.5, 차고 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Rented

14.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오피스,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중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입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센터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중앙일보건물2층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드레주르 제과점 옆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AHA AIRLINES
AIR CHINA
AIR CANADA

유심권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항공권+유심권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드립니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info@toptravelusa.com
■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08/05~08/15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390+항공
08/08~08/13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8/14~08/20	알래스카 일주 마강 6박 7일 \$2990(항공포함)
08/21~08/31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 마강 10박 11일 \$2990+항공/오션뷰
08/29~09/01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마강 3박 4일 \$1290+항공
09/08~09/15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2190(부터~/인사이드) \$2590(부터~/가려진 발코니)
09/09~09/19	정통 서유럽 마강양박 10박 11일 \$3590+항공
09/16~09/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9/30~10/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30~10/06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5~10/13	크로아티아 발칸 8박 9일 \$35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마강양박 10박 11일 \$2990+항공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3490+항공 부터~/오션뷰
10/21~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8박 9일 \$2290+항공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마강 10박 11일 \$29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 11일 \$3590+항공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1/03~11/14	일본 크루즈 11박 12일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26~11/30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690+항공
1/21~2/2/26	신비의 인도&네팔 12박 13일 \$4590+항공
01/27~02/06	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0박 11일 \$7800+항공
02/03~02/07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02/11~02/22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02/19~03/06	아프리카 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02/25~03/02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4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03/22~03/28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04/21~05/01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 11일 \$2990+항공

최고급 여행사

고품격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국일주

10박11일 | \$2990+항공

32년 전통 **탐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탐여행사가 모십니다.

고국여행과 일본여행을 한번에!!

3차 09/16~09/26 + 오사카
 3박 4일 | 9/27~9/30 | 실숙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단풍특선
4차 10/14~10/24 + 동경 파랑임박
 3박 4일 | 10/25~10/28 | 실숙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5차 10/21~10/31 + 일본코루즈 파랑
 11박 12일 | 11/3~11/14 | 인사이드 \$2990+항공부터~
 오션뷰 발코니 요금문의

동경&오사카 11/01~11/06
 5박 6일 | 실숙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최고의 단풍 시즌 관광
6차 10/28~11/07 + 동경&오사카
 5박 6일 | 11/8~11/13 | 실숙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또는

일본

연합

투어

*2인 이상
출발보장

동경

3박 4일 | \$1149+항공

오사카

3박 4일 | \$1149+항공

동경&오사카

5박 6일 | \$1899+항공

동경&오사카

11/01~11/06
5박 6일 | \$1899+항공

일출발

화출발

단풍특선

소규모 맞춤여행

탐여행사는 소규모의 단체여행을 모국, 유럽 등 전세계를
 요구하시는 대로 맞춤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친한 그룹끼리 **골프** 또는 **여행을**, 할아버지·
 아버지·어머니·손자·손녀들만의 **3세대 투어**를 전문적
 으로 맞춤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 최고급 호텔 숙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
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션/경주 라한셀렉트
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여행지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
 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
 속초/김포/제주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오션뷰

소노캄 여수
일반뷰와 \$170차이

소노캄 거제

오션뷰

일반뷰와 \$170차이

그랜드 조션 부산

오션뷰

일반뷰와 \$180차이

라한셀렉트 경주

오션뷰

롯데리조트 제주
일반뷰와 \$180차이

롯데리조트 제주

오션뷰

일반뷰와 \$250차이

업그레이드!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동대문 노보텔과
\$240 차이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에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내륙

6박 7일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동해안

4박 5일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제주+동해

6박 7일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서남권

3박 4일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제주도

2박 3일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전국일주

9박 10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매주 2인 이상 출발보장]
서울 사무소 직영 운영

**동남아
연합투어**

방콕/파타야
3박 5일 | \$490+항공

다낭
3박 5일 | \$450+항공

대만
3박 4일 | \$690+항공

하노이/하롱베이
3박 5일 | \$690+항공

나트랑/달랏
3박 5일 | \$450+항공

싱가폴
3박 5일 | \$850+항공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세브란스 (미국국적) **20% off**
남 \$720/여 \$770



한국 프리미엄
병원 진료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현대아산병원/경희대병원/가천대길병원

성국
노아
+아미쉬마켓 당일

9/9, 9/30, 10/16
10/29, 11/13, 12/4

\$199

미국 미동부 마이아이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라츠버그/뉴욕 마이아이라 폭포 옆 Hotel 숙박	월 무조건 출발 5박 6일 \$1350	월 무조건 출발 뉴욕/천섬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3박 4일 \$899	서부투어 참여행사의 자량!!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넌까지 일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일월 출발	미서부 5박 6일 \$990+항공 매주 월 출발	서부 4대 캐넌 5박 6일 \$990+항공 매주 월 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매주 월 출발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더와 스페셜 특식(옵션) 2박 3일 \$650	뉴욕 워싱턴다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1박 2일 \$399		5대 캐넌+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매주 월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출발	마운틴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7/4, 8/29)

이 대통령 “배임죄 개선, 경영위축 막겠다”

“징벌적 배상” 강조한 다음날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 TF 지시

“기업 활력 회복” “투자 분위기 확대” “확기적인 규제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주문한 내용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며 기업에 경고장을 꺼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은 “우리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며 친(親)기업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계의 숙원이던 배임죄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상법 개

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을 두고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업에 위한 ‘당근’을 꺼내 든 셈이다. 재계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배임죄를 개선해 달라고 오래 요구해 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경제 형벌의 재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법률엔 인허가 취소나 과징금, 과태료 같은 행정적·경제적 제재 외에도 형사 처벌이 대거 규정돼 있는데, 경제 법령을 전수조사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경제형벌 축소 지시가 ‘기업 달래기’ 차원만이 아니라는 게 참모들

의 설명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력이 배임죄를 기업을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해 온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었다.

이 대통령 개인의 경험도 이 같은 소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년간 매달렸던 죄목이 배임죄였다. 여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모범적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대장동 개발을 검찰이 배임죄로 엮은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적극 행정이나 정상적인 사업을 배임죄로 엮는 건 문제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것 역시 소년공 시절 산재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추측도 나온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총수와의 만남도 이날 지시의 촉매제가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외국에선 한국에서 사업하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린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 등에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등 노조 쪽 얘기에 너무 힘을 신는다는 우려도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급격한 모드 전환에 재계는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으로 경영 불안정성이 컸던 만큼 기대감을 갖게 된다”면서도 “단 노란봉투법·상법을 밀어붙이던 흐름에 비춰 보면 액셀

(accelerator·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는 차에 올라탄 기분”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법·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겹치다 다른 배임죄 완화로 완충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준모(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새 정부가 ‘경제는 보수’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노동 관련 입법 속도전에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통과할지언정 유예 기간이 있다”며 “그사이에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시행령 등을 통해서도 재계의 우려를 완충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윤성민·최선을 기자

국정위, 노무현 때 만든 ‘화물차 업무개시명령’ 폐지 추진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후 도입
2022년 6월 윤석열 때 처음 발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을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100대 국정과제’에 산안법을 기존 근로자 개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적용하는 개편 방침을 담았다. 지난 7월 경북 구미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자 정부는 ‘휴식의 무화’ 제도 등 산안법에 근거한 폭염 대책을 마련했지만, 특수고용(이하 특고)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중앙일보가 30일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초안엔 ① 노동자가 안전한 나라 ②차별 없는 일터 ③노동기본권 보장 ④일·가정·삶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공존하는 일터 ⑤통합과 성장의 고용 정책 ⑥인구·기후·디지털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등 총 6개 국정과제와 총 30개 실천과제가 담겼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첫 번째 실천 과제로 산안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편하는 게 그

핵심이다. 형식상 ‘개인 사업자’인 특고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그간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2020년 1월 특고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한 77·78조가 신설되긴 했지만, 딱 이 두 조항만을 적용받

았다. 또한 모든 특고 근로자가 77·78조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명시돼 여러 장소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산안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지난 22일에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에 근거한 정부 폭염 대책인 ▶두 시간 일하고 20분 이상 휴식권 ▶작업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인 작업중지권 등을 특고 근로자에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국정기획위는 노동계 요구를 대거 수렴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의 업무개시명령제(14조) 폐지도 초안에 담겼다. 업무개시명령제는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노무현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동됐다.

또 재계 우려가 큰 초기업 단위 단체 교섭 활성화도 포함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초기업별 교섭단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담길 예정이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같은 업종에 있는 여러 노조를 묶어 산업별로 임금 등을 교섭하는 것을 뜻한다. 산별 교섭 결과를 해당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다.

국정기획위가 종합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고용보다 노동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비중을 따지자면 25% 정도가 고용 파트고, 나머지 75%는 노동 파트”라며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노동친화 공약을 강조했던 만큼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고용노동비서관 직제를 ‘노동비서관’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에서 고용·노동 국정과제 작업을 주도했던 한국노총 출신 이옥남 전 전략조정본부장이 최근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으로 임명돼 국정과제 이행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윤지원 기자

여당, 현대차·현대제철에도 ‘파업 손배소’ 취하 요청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현대제철에 과거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

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정치권과 자동차·철강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상대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했다.

손배소 건은 현대차 3건(2010·2013·2023년 파업), 현대제철 1건(2021년 파업) 등 총 4건이다. 민주당은 한화오션이 2022년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배소를 취하하도록 회사와 하청노조를 중재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사내 하청노조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며 2010년과 2013년 울산 3공장을 각각 점거했다. 30일 현재 2010년 건은 파업 노동자 1명을 상대

로 제기한 7500만원 청구 소송이, 2013년 건은 4명을 상대로 한 4600만원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건은 2023년 대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2010년 건), 울산지법(2013년 건)에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김효성 기자

It's Okay,
with
Jesus!

www.hyebanmd.com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금 11AM ~ 2PM)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밀반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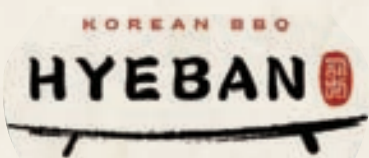


7월 25일 (금) 부터
“All Day Buffet” 시작합니다!
(Buffet 또는 Buffet + BBQ를 선택)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스시 맨, 스시 보조
(숙소 제공 가능)

*주말 발렛파킹 서비스 해드립니다.

‘산재와 전쟁’ 하루만에 ... 경찰·노동부, 한솔 압수수색

(대전 제자공장)

16일 한솔 근로자 기계 내부서 숨져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포스코이앤씨, 4년간 사망사고 8건

대전시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 한솔제지 서
울 본사와 대전공장·신탄진공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6일 발생
한 근로자 사망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 전날 이재명 대통령
이 산재사고와 관련,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사망사고
반복은 미필적 고의살인”이라고 질타
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이날 폐쇄회로TV(CCTV)
영상 자료와 공장 관계자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했다. 당국은 압수수색에
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근로자 A씨(30
대)가 가동 중이던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장 측에서는 사고를 알
지 못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56분쯤
“납편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A씨 아
내의 신고를 받고 사태 파악에 나섰
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A
씨가 공장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CCTV 영상 분석에 나선 경찰은 불량
품이나 폐종이를 팔프 제조기 탱크에
올려 넣는 작업을 하던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하는 모
습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지만 A씨의 사고를 목격
하지 못했다고 한다. 숨진 A씨는 입사
한 지 한 달 된 직원이었다. 동료들은
경찰에서 “교대시간이 다가오고 있었
고 A씨가 먼저 퇴근한 것으로 알았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은 신탄진공장에 대
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공장에
서는 2022년 7월에도 하청업체 노동자
가 활성탄 더미에 깔려 숨졌다.

지난 17일 사고 현장을 찾은 고용노
동부 김중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추락을 방지하
기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

사고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현장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했다. 한
솔제지는 대표 명의로 올린 사고문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
편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경남 함양울산고
속도로 의령나들목에서 60대 하청업
체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8건
에 달한다.

올 4월에 경기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



괴 사고로 1명이 숨졌고, 1월엔 경남 김
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가 추락
사했다. 8건의 사고 유형을 보면 깔림
3건, 추락 3건, 끼임 1건, 감전 1건이었
다. 대부분 후진적 사고였고, 사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이 회
사에서 2019~2021년에도 6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산재사고에

포스코홀딩스는 8월 1일부터 장인화
회장 직속의 ‘그룹 안전특별진단 TF
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외부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철강사업 및 에
너지소재, 인프라사업 등 그룹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을 진단하
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진호·김연주 기자

민주당도 산재 근절 입법 시동...더 센 중대재해처벌법 만든

건설안전특별법 입법도 속도전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자 30일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서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건을 “미필
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
화에서 “이 대통령 언급 전부터 ‘중대
재해처벌법’ 개정 등에는 당내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예로

들며 “건설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내고
법안을 성숙시켜 중대재해처벌법 이상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고 말했다.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발주
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이다. 지난 28일 출범한 민주당 ‘산업재
해예방 TF’(김주영 단장)는 31일 포스
코이앤씨 현장도 방문한다.

국회에는 이날 기준 총 6건의 중대재
해처벌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재해 발
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하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의 내
용이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과정에서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최
대 5배’로 제한됐던 손해배상의 한도 규
정도 재검토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곧바로 ‘대표이사의
사업장 안전, 보건조치 핵심 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는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경영계가 총을 맞아서 비틀거리
는 상태인데, 밀도 끝도 없이 선명성만
갖고 법안을 추진해서야 되겠느냐”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낭패”라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최동석 “나치즘적 국민의례 집어치워야” ... 박범계 “직무수행 어려워”

(인사혁신처장)

최, 이들 전 국무회의선 국민의례 해
“70세 넘으면 공직 물러나야” 발언도

최동석(사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국
민의례를 파시즘과 나치즘에 빗대 비
판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 4월 6일 유튜브 방송
‘유용화의 생활 정치’에 출연해 “국기
에 대한 맹세, 국민의례 이런 것 다 집어

치워야 한다”며 “파시즘적인, 나치즘
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스며 있다”고
말했다. 파시즘과 나치즘은 제1차 세
계대전 이후 각각 이탈리아와 독
일에서 나타난 극단적 전체주의
이념을 뜻한다.

또한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최
처장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
부 장관의 나이(74세)를 거

론하며 “70 넘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례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던 최 처장은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는 가슴에 손을 올리고 국민의
례를 했다. 행정기관장은 공
식 행사 전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대통령훈령



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
사혁신처장은 공직 인사와 윤리·복무
를 관장하는 자리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인사혁신처장
으로 발탁된 후 “문재인(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 등의 과거 발언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최
처장은 지난 29일 “일부 거친 표현이 심

려를 끼칠 수 있었다. 송구하다는 말씀
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배포했다.

최 처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권
에선 날 선 반응이 분출했다. 문재인 정
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
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에서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를 수
행하기에 어려운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재
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조수빈 기자

한미기독교장학재단 제 6회 신학교 장학생 선발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의 신학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모범 신학생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아 래

- **접수 기간** : 2025년 7월 10일 ~ 8월 9일 (토) 오후 5시까지 필착
- **장학금(예산)** : 5,000 달러 (5명)
- **지원 자격**
 1. DC, MD, VA 지역 한인 학생 및 소수민족 신학교 Full time 재학생
 2. 상기 주정부의 인허를 받고 국토안보부(이민국)로 부터 해외 유학생 VISA를 위한 I-20 Form을 자체 발급하는 학교의 재학생 (2025년 8월 현재)



● 제출 서류

1. 소정 신청서 및 추천서 1통 (재학중인 학교 이사장, 총(학)장, 교무처장, 또는 학생처장 중 1인)
2. 이력서 및 신학교 성적 증명서 각각 1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3. 간단한 자기 소개와 “내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제하의 에세이 1.5매~2매 분량(한글 또는 영문) 제출

※ 소정 양식은 다음 주소로 신청하면 우송해 드립니다.
선발 결과는 신문에 게재하며 개별 통지 합니다.

K-A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 Inc. 이사장: 김택용 목사
10153 Wavell Road, Fairfax, VA 22032 typaulkim@gmail.com

K-A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 INC.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특검 “건진법사 사건은 국정농단”... 윤석열 체포영장도 청구

김건희 특검 “정부 상대 이권로비” ‘키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구속
윤, 특검 소환에 이틀째 불출석 “눈 지병·당뇨로 실명 위험 소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0일 구속된 윤영호(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진법사 청탁 사건을 ‘국정농단’에 비유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교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65)씨 같은 브로커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시도한 것은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한 이권 로비라고 강조하면서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통일교가 정부의 권한과 한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탁을 시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정농단’ 범죄라고 규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백은 ‘메콩 피스 파크 프로젝트(MPP)’를 포함해 통일

교가 추진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YTN 인수 등을 위한 뇌물성 금품이라고 특검팀은 봤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창립 행사 당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하며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는 말도 남겼다. 통일교 측은 명품 선물 제공 등을 “윤 전 본부

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수증·품의서 등을 근거로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하는 등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은 특히 “청탁을 해서 이뤄진 게 없다. 캄보디아 ODA 예산이 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명태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교도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특검 사무실로의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

나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했다”며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4번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사 당시 두 번 발부받았고, 내란 특검이 지난 6월 24일 세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눈 지병과 당뇨로 인해 실명 위험이 있다는 주치의 의견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을 지난 27일 소환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당선인의 뜻’이라며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전화해 ‘장제원한테 이야기 들었느냐’며 공천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 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를 31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불러 공천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이상민 ‘내란 순차 공모범’ 지목한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는 국헌문란”

(순차적으로 가담)

윤·김용원과 공모공동정범 묶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는 그 자체로 ‘국헌문란(國憲紊亂)’이라는 논리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내란중요업무 종사 혐의 등)을 청구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을 내란 범죄의 ‘순차 공모범’이라고

도 지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는 언론사의 기능 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라 내용을 담았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로 언론·출판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적법 절차가 없었지 않나”라며 “단전·단수 지시는 국헌문란”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통해서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 했다는 판단이다. 영장엔 윤 전 대통령과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공모했고,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로

이에 가담했던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軍)사령관들을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으로 기재했다. 내란의 계획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을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공모공동정범’으로 묶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허석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성진 기자

“대한해협 비행한 중국 스텔스기 J-20, 한·일은 몰랐다”

(5세대 최신에 전투기)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쟈(殲)-20(J-20·사진)가 최근 대한해협 동수로(일본명 쓰시마해협)를 비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한국과 일본군 당국 모두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TV(CC-TV)는 지난 27일 인민해방군 창설 기념일(8월 1일)을 앞두고 방영한 특집 시리즈에서 엘리트 공군부대인 제1항공여단이 “바시해협과 쓰시마해협(대한해협 동수로)을 비행하며 대만 주변을 순찰한다”고 언급했다. 방송 전반에 걸쳐 최신헌 J-20 전투기의 모습이 등장했고, 제1항공여단은 J-20이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란 점에서 J-20이 직접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SCMP는 분석했다. CC-TV는 J-20의 구체적인 비행 시점이나 작전 명칭을 명시하지 않았다.

CC-TV 군사채널은 해당 영상을 공식 웨이보 계정에 게재했다. 이어 인민일보 역시 이를 공유했다. 중국이 자국의 스텔스기 능력을 과시하고 역대 전략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비행이 단순한 전력 시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 셈이다.

SCMP는 “쓰시마해협은 한국과 일



본 사이의 좁고 전략적인 수역으로, 동해와 동중국해를 잇는 요충지”라며 “해당 지역은 미군의 사드(THAAD) 체계를 포함해 미국·한국·일본의 첨단 레이더 감시망이 집중된 구간”이라고 짚었다. 그런데도 이번 J-20의 통과를 한국과 일본 어느 쪽에도 탐지되거나 내부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 설명이다.

중국 군사 블로거들도 관련 내용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블로거인 단란사 오쓰(淡然小司)는 “이론상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는 쓰시마해협 전역을 감

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미탐지 사례는 J-20의 스텔스 성능이 이미 한·미·일의 첨단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J-20은 중국이 미국의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5세대 스텔스기다. 특수 코팅과 구조 설계를 통해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의 크기가 F-35에 비견된다고 중국 당국은 설명한다. 연간 120대의 J-20을 생산하는 중국은 올해 말까지 400대의 J-20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 군용기의 대한해협 동수로 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구형 J-11 전투기 및 H-6K 폭격기 등이 해당 수역을 통해 동중국해에서 동해로 비행한 바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국군 함정이 대한해

협 동수로를 지나 동해에 진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동해와 남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르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진입하기 전 사전 통보하는 게 국제 관례다.

다만 SCMP는 중국의 J-20 비행 공개를 일본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 다소 무게를 뒀다. SCMP는 “이달 초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양국 군용기 간 근접 접근을 두고 서로 비난을 주고받았다”며 “CC-TV의 보도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립 98주년을 앞두고 베이징과 도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국민의힘 전대냐 아스팔트 전대냐... “탄핵 반대” 6명 출마

〈최고위원〉

김민수·김소연·김태우·류여해... 보수 스피커 최고위원 후보 등록 ‘윤 공천개입’ 의혹 피의자 명태균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을 주장했던 보수 성향 스피커가 줄지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최고위원 후보로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류여해 전 최고위원,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가나다순) 등 8명이 등록했다. 이들 중 김근식·손범규 당협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반탄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틀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걸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빚대 “과천상륙작전”이

라고 발언했다. 최근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시켰다”며 찬탄(탄핵 찬성)파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소연 변호사는 계엄 당시 페이스북 북에 “구국의 결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거나 “비상계엄은 사실 비상계몽” 등의 글을 올렸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사기 탄핵 진상 규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지난해 7·23 전당대회 맨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했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을 우리 손으로 지켜드리자. 지금 상황은 체제 전쟁이고 물러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유죄(공무상 비밀누설) 확정으로 생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낙선했었다. 당시 여권에선 “공천 자체가 패착”이란 반응이었고, “(출마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었다. 2018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던 그는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직 박탈 문제를 놓고 홍준표 당시 대표와 정면충돌했다. 당시 홍 전 시장이 “주막집 주모의 푸념”이라고 비난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김민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30 커퍼셋에 참석해 발언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 의원은 지난해 28일 김 전 장관을 향해 “대선 단일화 반박으로 대통령직을 한남했다.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김 전 장관은 “제 거취는 당원께서 결정한다”고 받아쳤다.



김민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30 커퍼셋에 참석해 발언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 의원은 지난해 28일 김 전 장관을 향해 “대선 단일화 반박으로 대통령직을 한남했다.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김 전 장관은 “제 거취는 당원께서 결정한다”고 받아쳤다.

당내에선 “여성인 김 변호사와 류 전 최고위원 둘 중 한 명은 당선”이란 말이 나온다. 최고위원 상위 4명 중 여성이

없을 경우 남성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최고 득표자가 당선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31일까지 현역 의원 등 추가 여성 출마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명태균씨가 김 변호사와 류 전 최고위원을 지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명씨는 페이스북에 “제 변호

를 돕는 김 변호사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달라” “제 벗인 류 전 최고위원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적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김민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조경태·안철수·주진우 의원은 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도 등록할 예정이다.

당내 ‘반탄 대 찬탄’ 진영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또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져 동지들을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안 의원”이라고 공격했다. 안 의원은 전날 내란특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비판하자, 이를 비판 것이다. 권 의원은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도 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으로 ‘체리 파봉’ 이모티콘을 보낸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하수인”이라고 맞받았다.

손국희·장서윤 기자

여당 의원들, 미 대사관 앞에서 “농산물 개방 압박은 깡패짓”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규탄 구호 당 지도부는 “협상 중 사안” 신중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인 통상 압력을 중단하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선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를 규탄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개방 압력에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며 “미국 정부는 더는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미 협상 테이블에 쌀과 소고기 등이 올라가자 농촌을 지역구로 둔 여당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서울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 관세 협상 중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들이 직접 나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농업은 쥐어짜야 하는 마른 수건이 아니다. 농

민들에게 더 이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미국의 통상 요구는 우리의 식량 주권뿐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건강권을 현저히 위협하

고 있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금도 한국은 미국에서 (농축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하는 건 깡패짓 무엇이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에 경고한다. 이제 더 이상 농산물을 양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문태림 의원도 “우리 민주당은 결사항전할 것이다.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 대사관 측에 직접 항의서한 전달을 시도했지만 서한 전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직접 전달 하진 못했다. 대신 이들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측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30개 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2008년 광우병 과동 대상이었던 그 소고기”라며 “통상 협상 이전에 검역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이 지역구인 의원은 “어떻게 해서든 농축산물 수입 개방을 막아야 한다”며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 가용 수단을 모두 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가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 당이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건 불가피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조수빈 기자

한국 임상의사 수 OECD 꼴찌 수준인데, 국민 진료횟수는 1등

인구 1000명당 2.66명, 끝에서 2등 OECD 평균 3.86명과 큰 차이 보여

한국의 임상 의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병상과 외래진료 횟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대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건통계 2025’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OECD는 매년 건강 상태, 보건의료 자원 등의 수치를 발표하는데, 대부분 2023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 수(한 의사 포함)는 한국이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집계

됐다. OECD 국가 중 일본(2.65명) 다음으로 적었다. OECD 평균(3.86명)과 차이도 컸다.

이처럼 의사 수가 적다는 수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의 주요 근거로 쓰였다. 국내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이스라엘, 캐나다에 이

어서 번째로 적었다. 임상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인구 1000명당 9.5명)도 OECD 평균(9.7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병원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6개)는 1위로 OECD 평균(4.2개)의 3배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국내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2023년 기준 한국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남성 80.6년, 여성 86.4년)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81.1년)보다 훨씬 높은 상위권에 속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84.3년)와는 0.8년의 차이를 보였다. 기대수명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의미한다.

정종훈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젠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Lumiere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T. 703-652-4265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밥 머저씨?

한국식 인사법으로 가장 많이 오가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밥 먹었어”다. 특히 가족끼리는 더욱 그렇다. 나 역시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밥은 먹었냐?”는 식으로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돌아오는 답은 “머저씨” 아니면 “안머저씨”다.

그리고 무엇을 더 물어보니 이번에는 “어떡케 아라씨”라고 한다. “아라씨” 대신 “아라씨”라고 하는 것을 보니 기분은 괜찮은 모양이다. 그나마 오늘도 어떻게 대답에 받침이 하나도 없네. 이래도 괜찮나 싶어 이번에도 ‘머저씨’처럼 먹는 것과 관련해선 탁월한 전문가이자 언어에도 영향력이 큰 백○○씨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뭘 걱정이 그러케 마녀유. 그냥 내비 뒤풀유. 다 알아들으면 됐지 뭘 그래유?” 그러다.

그래도 나는 걱정이 가시지 않는다. 받침 없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은 ‘추카추카’에서 시작해 머저씨, 아라씨, 어쩌케, 그러케(그렇게), 마녀(많아)뿐 아니라 시리(싫어), 조아(좋아), 조타(좋다), 마녀(많이), 아라요(알아요), 부지러니(부지런히), 가튼데(같은데), 일저씨(일었어)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 역시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생기는 일로, 소통엔 별 문제가 없다. 그만큼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까지 미리 알고 대비하셨는지 선견지명이 놀랍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구호 현장에서

길 위의 삶, 쉼터 그 후를 도와야



김재학
굿네이버스
USA 본부장

정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았다. 특히 LA 카운티 내 이민자 사회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임시 거처를 넘어 영구 주택으로의 안정적인 연계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완전한 자립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절실했다.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LA 시와 카운티 정부가 주거 정책을 강화하며 노숙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가 다양한 인종과 커뮤니티에 고

르게 미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 했다. 정부의 자원과 비영리단체의 현장 경험이 결합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가정폭력 지원 쉼터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LA 지역을 넘어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단순한 긴급 구조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연계, 정신 건강 서비스, 장기 임대 주택 연결까지 포함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정한 자립을 돕겠다는 포부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굿네이버스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LA 노숙자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많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굿네이버스 역시 그 길에 동참하며, 모든 커뮤니티와 이웃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잠망경

‘무디’한 통치기

〈Moody〉



서량
시인·정신과 의사

기에 들어서서 ‘feel’에 ‘느낌’이라는 의미가 깃들여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촉감=느낌’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이다.

한가지 난점이 있다. 촉감도 느낌도 언어라는 도구를 빌려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정신상담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항으로서 자기감정을 말로 옮기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치유의 진도가 느리다는 통설이 그것이다. 언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신적인 진화를 일으키기 쉽다는 견해.

아니다. 꼭 그렇다고 우기지 못한다. 생물체와 생물체 사이에 언어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껴며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살아온 뼈저린 체험이다. 일종의 전자파장. 당신과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와이파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3. 감정

‘느낌’은 순우리말. ‘감정(感情)’은 한자어. 당신은 부디 ‘느낌 感’을 ‘유감(遺憾)’의 ‘접접할 憾’과 혼동하지 말지어다. 발음이 같다고 해서 자칫 ‘느낌=접접할’이라는 엉뚱한 등식을 내세우고 싶은 유혹이 솟는다. 느낌이나 감정이 지나치면 접접한 마음이 짝뿔 수도 있으려니. 성(性), 또는 정(情)에서처럼 심방변(心傍邊)에 느낄 감(感)이 합쳐진 모습을 숙지해주기 바란다. ‘너 나한테 감정 있어?’ 할 때는 感情이고 ‘감정이 솟구치다’ 할 때는 感情인 것을.

#4. 통치기

정치가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유감(遺憾)을 표명함으로써 자기의 원망심에 방점을 찍는다.

세상에 이런 발칙한 발언이 또 있을까. 육중한 한자어를 교묘하게 사용하는 그들은 이런 말장난을 부리는 습관에 익숙하다. ‘줄 짓고 밭을 짓을 서로 없는 것으로 치다’라는 뜻의 통치기! 사과하기는커녕 ‘접접한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피해자로 그리고 상대를 가해자로 탈바꿈시킨 후, 이제야 가도 좋다는 시그널로 통! 하며 승용차 문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면서 나는 불현듯 기분이 ‘moody’ 해진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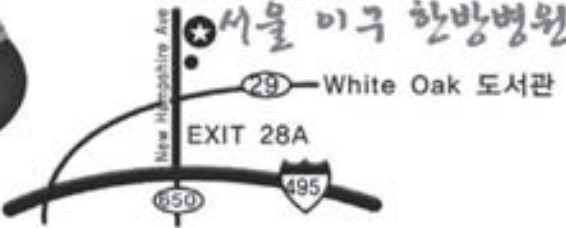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인적 쇄신과 주도세력 교체, 중도층 공약이 필수 과제

국민의힘은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지난주 전국지표조사(NBS, 7월 21~23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43%였다. 서너 달 전만 해도 양당의 지지율이 엇치락뒤치락했던 점에 비춰보면 6·3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하락세가 매우 가파르다. 물론 새 정권이 출범한 직후 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건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이었던 2022년 5월 1주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40%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5월 2주엔 국민의힘 45%, 민주당 31%로 바뀌었고 6월 2주엔 국민의힘 45%, 민주당 29%로 벌어졌다. 2017년 대선 때도 5월 1주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36%,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16%였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3주엔 민주당 48%, 자유한국당 8%, 국민의당 8%로 구도가 급변했다.

정권 초엔 국민의 관심이 온통 새 정부에 쏠리고, 야당은 지지층이 모래알처럼 흩어진 상태라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들이붓는 반면 국민의힘은 3대 특검 수사에 얽여 코너에 몰려있다. 지금 여야 지지율이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지는 게 당연한지도 모른다.

이명박·박근혜 시너지 효과

그렇지만 보수 진영의 미래가 완전히 봉쇄된 건 아니다. 과거에도 몰락했던 보수가 천신만고 끝에 부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국민의힘도 착실히 재할수순을 밟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참패는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관건은 국민의힘이 예전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2004년 3월 17대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은 백척간두의 위기였다. 그해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여론의 대대적인 역풍을 맞고 총선 대패의 비상이 커졌다. 당시 중앙일보가 전국 20개 접전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탄핵 이전인 3월 2~10일 조사에선 한나라당이 11곳에서 1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3곳에서 1위였다. 하지만 탄핵 이후인 3월 19~21일 조사에선 열린우리당이 19곳에서 1위로 민심이 급변했다. 4·15 총선

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잘해야 70~80석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이가 박근혜 의원이었다. 3월 23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원 포인트 당 대표로 선출된 박 의원은 곧바로 여의도 ‘호화 당사’를 바치고 나와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관 터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시세가 1000억원이 넘는 천안연수원도 국고에 헌납했다. 탄핵과 차떼기 사건으로 망가진 당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이벤트였다. 최병렬·양정규·하순봉 의원 등 구주류의 핵심이었던 중진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거 용퇴를 선언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실수가 겹치면서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121석의 호성적을 거뒀다. 비록 1당은 열린우리당에 내줬지만, 정권 교체의 기반은 다진 셈이었다.

이후 당 밖에선 이명박 서울시장의 수도이전 반대와 청계천 복원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표가 대구·경북과 보수층이 핵심 지지세력이라면, 이 시장은 수도권과 중도층에 강점이 있었다. 두 사람은 갈등도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외연을 넓히는 시너지 효과를 내 2007년 대선 때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5·18 묘지서 무릎 꿇은 김종인

2020년 4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장래가 암담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쪼개졌던 바른정당 탈당파와 3년여 만에 다시 손잡고 당명도 개정(중전 자유한국당)하며 의욕적으로 21대 총선을 준비했다. 하지만 결과는 103석의 대참패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입법을 좌지우지했으며, 보수의 존재감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 색채가 강했던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고 개혁성향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김병민 서울 광진갑 조직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 등 80년대생을 비대위원으로 발탁해 인적 쇄신의 흐름을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그해 8월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꿇어 화제를 모았다. 그해 9월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꿨다.

보수의 변신 노력은 2021년부터 결실을 보았다. 부동산 급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진 틈을 타 국민의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



1 2004년 3월 24일 천막당사(작은 사진)로 당 현판을 옮기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2 2020년 8월 19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었다. 3 2021년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신임 대표. (중앙포토)

다. 국민의힘은 그해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7월엔 2016년 10월 최순실 사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정당 지지율 조사(한국갤럽)에서 민주당을 추월했다.

보수의 혁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36세의 원외(院外) 이준석 후보가 관록의 나경원 후보를 꺾고 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30대 당 대표라는 건 기존 보수정당의 정치 문법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대 사변이었다. 여기에서 그해 7월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면서 보수의 변화는 정점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단죄해 보수의 암흑기를 초래한 장

본인이었다. 하지만 국민적 인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진영은 모든 과거를 덮었다. ‘종전 방식’으로 정권 교체가 힘들겠다는 보수층의 위기감과 각성이 김종인-이준석-윤석열로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을 만들었다.

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 포기?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보수 재기를 위해 무엇보다 인적 쇄신과 주도세력의 교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로 패배한 뒤 5년 뒤에 똑같은 이회창 카드로 대선을 노렸다가 연거푸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로 대패한 뒤 다시 홍 후

보를 당 대표로 뽑아 2018년 지방선거를 치렀다가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뽑을 예정이다. 에이스리처치가 지난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표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34.9%가 지난 대선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았다. 이어 장동혁 의원 19.8%, 조경태 의원 11.0%, 주진우 의원 8.8%, 안철수 의원 8.0%의 순서였다. 지난 6월 대선에서 대패한 김 전 장관은 거리로 나섰던 ‘윤석열 탄핵반대’ 진영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대표가 되는 건 당의 인적 쇄신과 주도세력(원운) 교체와는 거리가 먼 결과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2026년 지방선거는 내심 포기한 상태이며, 그 이후에 새 지도부를 꾸려 2028년 총선을 도모할 것이란 말이 그럴듯하게 나돌고 있다. 보수가 재기하려면 중도층 흡수도 절체절명의 과제다. 2007년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압승한 것은 이명박 후보가 중도층 민심에 크게 어필했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도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면서 중도층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2022년 대선 때는 2030 세대에서 영향력이 큰 이준석 대표와 중도층에 지분이 있는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후보 당선에 큰 도움이 됐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윤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내치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 분명한 선을 긋고 정책 노선을 왼쪽으로 옮기는 시도를 해야 한다. 언젠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내에선 그런 개혁을 주도할 주체가 마땅치가 않다. 대선 이후 김용태 비대위원장,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비슷한 노력을 했지만, 구주류의 벽에 막혀 별무신통이었다. 정당 플랫폼 개혁도 절실하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전한길 씨의 입당과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개입설이 논란이다.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국민의힘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당의 기반이 허약하다는 방증이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는 변화를 추구했을 때 승리했고, 현실에 안주하면 패배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 국민의힘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김정학 논설위원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진료
내용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시 설

중도·실용 공약 너무 빨리 내팽개치는 여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하면서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기간 경제성장을 첫 번째 공약으로 강조했고,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선거 한 달 전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선 “경제와 산업을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중도와 실용을 앞세운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 공약에 의구심이 제기될 때마다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 경제가 하강 침체기에 들어온 지금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무조건 2년 정도는 나라를 안정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지자들이 “대선에서 진보 어젠다가 실종했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 통합·실용주의 약속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당은 개혁 입법을 내세우며 기업 활동을 위촉시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밀어붙였다. 상법과 노조법뿐 아니라 ‘방송 장악’ 논란을 빚는 방송 3법까지 강행할 태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3개 주요 협회는 어제(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도 역시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에 인한

대선 땀 유연한 실용 강조하더니 입법 몰아치기
실용주의 구호와 반기업 행보 사이 국민은 혼란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성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해외 투자 기업에까지 불안감을 안긴 것이다.

기업에 적대적인 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당심이 70% 반영되는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강경 지지층 표를 얻기 위해 기업을 때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기업을 옥죄는 악역을 맡고 이 대통령은 유연함을 보이는 역할분담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 재검토와 경제형별 합리화 TF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실용 메시지를 내도 여당이 기업을 압박하는 법을 강행하면 친기업 약속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해외 기업들이 지목한 건 여당이 강행하는 노란봉투법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여당의 반기업 행보 사이에서 국민은 헷갈린다. 여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가슴이 타들어 가는 국내 기업을 더욱 궁지로 몰다면 ‘유연한 실용정부’ 공약은 신뢰를 잃게 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실용 메시지를 내도 여당이 기업을 압박하는 법을 강행하면 친기업

조국의 강, 다시 건너려 하나

정호식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춘추시대 조씨 일가는 3대에 걸쳐 복수한다. 저의 공적 응징의 첫 번째 선택이 집필이고, 두 번째 선택이 정치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옥중에서 『조국의 공부』를 출간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2019년 검찰 수사는 ‘조국 사태’가 아니라 ‘조국 사냥’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아직 ‘조국의 미래’를 말할 시간은 아니라고 본다.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더 큰 정치, 더 넓은 정치를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가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선 사면복권이 전제조건이다.

공교롭게도 때마침 여권발로 조국 광복절 특사론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 전 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교도소를 직접 찾아가 특별면회했다. 우 의장 측에선 조 전 장관이 후원회장을 오래 했던 “정치적 인연 때문이지 특사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고 했지만, 모종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게 아닌가란 관측이 나왔다.

사면법 절차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를 상신해야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공감하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여권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유튜브 김어준 씨도 29일 사면복권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우리 사법 역사상 조국 일가족처럼 사냥당한 경우는 없다”고 거들었다.

조국 사면 군불때기는 두 달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이 대통령 취임 당일인 6월 4일 “조국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공개 옥중 편지를 보냈다. 조국 혁신당이 시민단체가 주도한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제헌절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에 동참했지만 여권의 호응이 없어 불발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조 전 장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함께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라며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달 5일 대법원에서 상방을 대복송금 및 뇌물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형을 확정받은 지 일주일도 채 안 지나서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같은 달 16일 수감생활을 시작해 2026년 12월 15일이 만기 출소 예정일이다. 그 후로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및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사면은 요건에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받으면 즉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권도 조 전 장관 특사 이후 정치 지형 변화, 특히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선거 구도에 미칠 폭발력 때문에 ‘시기상조론’이 나오는 등 속내가 복잡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여권에서 조국 문제는 강이 아니라 심연같이 깊은 수렁이다. 일주일 뒤 8월 7일 열리는 광복절 특사 사

여권발 조국 광복절 특사론 분출
본인 “조국 사태 아닌 조국 사냥”
“공정 훼손” 사과, 원점 회귀 안 돼

면심사를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할 지를 놓고 물밑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여서다.

결국 선택의 시험대에 오른 건 이 대통령이다. 사면권이 군주정에서 국왕이 신하에게 하사한 은사(특혜) 제도에서 유래한 대통령의 헌법상 특권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현시점에서 ‘민심’(조국 지지자)을 헤아려 ‘국민화합’(이·조 연대)을 도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사인지, 당면한 국정과제인 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선택에 직면했다.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등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현행 무제한 사면제도에 오히려 제한이 필요하다는 반대쪽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2021년 말 20대 대선후보 시절 “공정 훼손은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하며 어렵게 건넌 조국의 강을 다시 건너자는 건 한국 사회를 6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 아닌가.

사회부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6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10019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 전담경제게재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게재 02-751-5114, 9114	저작권지(이)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전담경제게재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게재 02-751-5114, 9114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외국인 인구 200만 시대…이제는 성숙한 포용 사회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제(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인구는 20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의 3.9%에 달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와 지역 유학생 유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전체 주민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여럿이다. 다문화 사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건설·농업·제조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데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벼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가 벼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에 매달린 채 조종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동료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가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유린”으로 규정했고,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피해 노동자는 “수치스럽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과거에도 폭언과 욕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괴롭힘이 공개적으로 행해졌는데도 영상에선 이를 제지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식 취업비자(E-9)를 받아 입국했고 최장 3년간 체류 자격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해도 직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90일 안에 사업장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출국조치되기 때문이다. 피해를 보고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선 인권 침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고용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 이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 한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빨리빨리’와 같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열등하다고 여기고 조롱이나 멸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무역 강국이자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수출국이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집단 괴롭힘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건 국가 이미지에도 치명적이다. 한국이 발전할수록 여기서 일하려는 외국인도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 역시 필요한 일 자리를 내국인으로만 채울 수 없다.

이제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할 때다. 차별과 혐오 대신 존중과 배려가 뿌리내린 성숙한 포용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고법관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리치몬드
페닌슬라
상당한영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사무장 김진주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54	Sterling, VA 30 P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6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5500 Metroplex Dr. Chantilly, VA 20151	Annap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30 Farmwell Hunt Place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90 B Glen Street Hern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8801 Belts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000 Belts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erser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	--	--	--	--	---	---	--	--	--	---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에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uly 31, 2025 C

냉·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가주 주택 19%는 투자자 소유

전국 평균치 20%보다 낮아
투자용 주택 145만채 전국 2위
LA 15%, OC·샌디에이고 16%

가주 주택 5채 중 1채가 투자자 소유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됐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인 배치데이터가 지난 24일 공개한 7월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전체 주택 가운데 투자자 소유 비율은 19%로 나타났다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보도했다. 이는 전국 평균이 20%에는 약간 못 미치는 것이다. 가주 주택의 투자자 비율은 전국 36위다.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이번 수치는 가주의 주택 부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를 드러냈다. 가주 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태로 지난 6년간 50%나 올랐다.

투자자 비율은 산악 지역에서 특히 높아 시에라 카운티의 경우 전체 주택의 83%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시에라와 트리니티, 모노, 알파인, 플루머스, 모독, 칼라베라스 등 7개 카운티에서는 투자자 소유 주택 비율이 50%를 넘었다. 해안가인 벤투라 카운티는 투자자 비중이 14%에 불과했다.

반면 도시 지역의 투자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LA 카운티는 15%에 그쳤으며 오렌지·샌디에이고·샌프란시



7월 기준 가주 주택 가운데 투자자 소유 비율을 19%로 나타내 전국 36위였지만 투자자 소유 주택 수는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발레호의 주택가 전경.

스코카운티는 16%였다. 가주는 투자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투자자 소유 주택 수는 145만 채로 전국 2위였다. 1위는 텍사스로 166만 채였으며 플로리다는 121만 채로 3위에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 투자자 비율이 높았다. 하와이는 40%, 알래스카는 35%나 됐다. 아칸소는 30%, 웨스트버지니아는 30%로 나타나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도 투자자 비율이 높았다. 투자자 중 15채를 보유한 소규모 투자자가 전체의 85%였으며 610채 보유자는

5%로 나타나 소형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 소유 주택의 약 90%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서 투자자 소유 주택 비중은 26.8%로 7월보다 높았으며 지난 5년 중 가장 높았다. 배치데이터는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투자자 활동이 증가한 것보다는 높은 주택 가격과 2022년 이후 두 배로 오른 모기지 금리가 일반 주택 구매자를 시장에서 밀어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투자자의 역할에 대해 "실구매자가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투자자들이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 필수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진보 성향의 독립적인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의 오마르 오캄포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의 수익을 노린다면 "투자자들은 막대한 현금을 부동산 시장에 투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지적했다. '주택 시장에서 역만장자 역효과'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오캄포 연구원은 주택 부족 문제는 단순히 새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주택의 20%를 기관 투자자가 매입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유희 객원기자

LA 저소득층 주거 보조금 섹션8 축소

LA에서 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섹션8 주거 보조금이 8월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A시 주택국은 연방정부의 예산 삭

감으로 섹션8 렌트비 보조금을 줄일 수 밖에 없으며 8월부터 새로 체결되는 섹션8 렌트비의 상한선이 10% 줄어든다고 밝혔다.

섹션8의 렌트비 상한선은 집코드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컬버시티 인근의 팜스 지역에서 1베드룸 아파트의 섹션8 렌트비 상한선은 월 2820달러였다. 그러나 8월부터 상한선이 10% 줄어든 2585달러가 된다. 섹션8은 세입자가 소득의

약 3분의 1을 렌트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렌트비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이번 조정은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8월 이후 섹션8 주택으로 이사하는 세입자의 보조금은 줄어든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The Law Offices of Ronald S. Canter, LLC
로날드 캔터 로펌
신지상 변호사
무료상담 (상법/상해/채무&채권 소송)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디씨,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 가능
301.545.2726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erllc.com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부동산 학교
수료료: \$295 (교재비: \$100)
5주 속성반
시작이 두려우면...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산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버지니아

2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며진 집, 벽돌, 마루바닥

3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교,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4
\$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세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메릴랜드

1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DC

1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2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LA 활보 배달 로봇… 편의성·일자리 엇갈린 시선

한인타운 포함 1000여대 운영…내년 1만대로 확대
업주들 “신속·정확” vs. 일부 배달기사 “생계 위협”
소비자들 단거리 제한·경로 오류·고장 등 불편 호소

배달 로봇이 실생활로 성큼 다가오면서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LA타임스(LAT)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UCLA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코코로보틱스는 최근 LA 전역으로 배달 로봇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한인타운을 비롯해 실버레이크, 에코파크 등 여러 지역에서 약 1000대의 로봇을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1만대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로봇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자율주행을 한다. 코코는 현재까지 50만 건 이상의 배달을 완료했으며, 수익은 우버이츠 같은 플랫폼과의 협업, 음식점과의 직접 계약, 광고 유치 등을 통해 발생한다.

코코로보틱스의 잭 래시 공동창업자는 LAT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음식점들이 즐겁게 쓸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만들고자 했다”며 “교통 혼잡이

나 주차 문제없이 많은 주문을 소화할 수 있다”며 배달 로봇의 장점을 설명했다.

업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강식을 주로 취급하는 카페 크리에이션 오가닉의 제퍼슨 오르티즈 매니저는 4월부터 이용한 로봇에 대해서 호평했다.

그는 “배달 기사들은 때때로 예의 없이 행동하기도 한다”며 “로봇은 신속 정확하게 배달만 하기 때문에 편하다”고 말했다.

한인타운의 한 식당 업주는 “현재 한인타운에서는 배달 로봇을 이용하는 식당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향후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면 로봇을 이용할 의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고객들 사이에서는 편리하고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지만, 아직 로봇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LA 월서 블라바드 선상 한 식당에서 배달기사(오른쪽)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배달 로봇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로봇이 경로를 잘못 찾아 끝내 배달에 실패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는 “내가 배달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로봇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달 기사들은 직업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버이츠 등을 통해서 실버레이크

주변에서 배달을 하는 줄리아 로지에로는 “예전엔 시간당 5건 정도 배달을 했지만, 이제는 많아야 3건 정도다”라며 “이제 리프트 운전도 병행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로봇은 주로 수익이 적은 단거리 주문을 처리하며 긴 배달은 여전히 배달 기사들이 하게 된다”며 로봇이 배달 기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

다고 설명했다.

배달 로봇의 확산은 외식업계의 인건비 절감과 배송 효율성 면에서는 반가운 변화지만, 배달기사들에게는 생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달 로봇이 향후 경제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원희 기자

이재용의 승부수, 머스크와 ‘반도체 동맹’

SAMSUNG 23조 파운드리 책판

삼성, 테슬라 자율주행·AI칩 제조
이 회장 경영복귀 뒤 첫 대형 계약
외신 “삼성 매출 연 10%씩 증가”
국내 소부장 업체들에도 큰 호재

28일 삼성전자의 23조원 규모 테슬라 인공지능(AI) 칩 수주는 파운드리 ‘막힌 혈’을 뚫는 한 방이다. 삼성은 2021년부터 투자한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을 침묵 끝에 가동하게 됐다.

일론 머스크 CEO는 이날 X에 삼성 텍사스(테일러) 팹에 최신 칩을 주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 공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 속도를 높일 것이고, 공장은 제 집에서 멀리 않은 편리한 곳에 있다”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2021년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고, 2022년 오스틴에 전기차 생산공장도 열었다.

삼성 테일러 공장이 생산할 AI6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할 자율주행 및 AI용 칩이다. 일론 머스크 CEO는 AI6에 대해, 이르면 2027년 테슬라 차량에 적용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AI 데이터센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AI6의 삼성 팹 생산 계획을 알리며 “이 소식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이는 극소수다. 2~3년 이내에 명확해질 것”이라고 X에 강조했다.

현재 테슬라 모델3 등에 탑재한 AI4는 삼성 파운드리가 제조하고 있으나, 다음 세대인 AI5 칩은 대만의 TSMC 파운드리가 주문을 차지했다. 그간 삼성은 전영현 부회장을 비롯한 DS(반도체) 부문 경영진이 총출동해 절치부심하며 테슬라 AI6 수주에 전력했다. 이번 수주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후 성사된 첫 대형 계약이기도 하다.

이번 수주로, 삼성 파운드리는 첨단 양산 경쟁에서 고객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분명히 했다. 최근 2~3년 새 AI 반도체·투자 활황으로, TSMC 파운드리에는 고객사가 줄 서서 기다렸고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 그럼에도 삼성·인텔 파운드리 첨단 공정은 삼성 갤럭시용



이재용

칩이나 인텔 중앙처리장치(CPU) 같은 내부 물량만 소화해 왔다. 수출 및 품질에서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한 탓이다.

올해 들어 삼성 파운드리는 1.4나노 양산을 2년 뒤로 미루고 2나노 공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몇 나노의 첨단 공장’을 먼저 양산했다고 선언하기보다, 고객사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품질로 만족시키는 데에 집중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날 와카스기 마사히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으로 삼성 파운드리 연 매출이 매년 10%씩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 수주

계약내용	테슬라 자체 개발 자율주행용 AI 칩 ‘AI6’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규모	165억 달러(약 22조7648억원) 삼성전자 2024년 매출액의 7.6% 규모
계약기간	2025년 7월 24일~2033년 12월 31일



머스크

인텔 파운드리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는 숙제도 안았다.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인텔 파운드리에 국방부 일감을 주며 판을 깔아줬지만, 스스로의 기술·서비스 혁신의 부족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트럼프 정부의 기조는 ‘미국산(産) 칩을 미국 기업이 만들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전임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 인텔을 지원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TSMC·폭스콘 등과 연합해 미국 내에서 AI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엔비디아의 계획을 인정했다. 인텔이 첨단 파운드리 경쟁에서 뒤로

물러난 지금, 미국 영토에서 첨단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건 TSMC(애리조나 공장) 외에 삼성뿐이다.

삼성 파운드리의 부진으로 그간 고전했던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도 호재를 맞게 됐다. 삼성 파운드리 핵심 협력사인 두산테스나, 네패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8%, 67% 감소했으나, 이날 삼성 테슬라 수주 발표 후 주가가 각각 29.96%, 10.10% 올랐다. 솔브레인(15.67%)과 원익IPS(15.38%), 동진세미캠(9.23%) 등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심서현·이우림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SOLD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 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SOLD

\$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 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RENTED

센터빌 타운홈
\$2,950

방3, 화2.5, 차고1, 굿로케이션
수리중: BrandNew LVP Floor,
전체Paint, Ceiling Lights, Blinds,
냉장고, 마루계단, 차고도어 등
**7월1일부터 입주가능

버크 싱글홈
\$1.25M

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숨이 아늑다운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571.999.2755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VA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과열의 끝인가, 구조적 전환의 시작인가

2025년 여름 시장 분석

2025년 여름의 미국 자본시장을 설명하기 위해 단 하나의 단어를 고르라면 그것은 아마도 ‘편향된 낙관주의’일 것이다. 과거 2000년 닷컴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회복기의 과열도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빠르고 집약적으로 투자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려 있다. 미국 주식 총액은 GDP 대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상위 50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2009년 저점 대비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평균 가계 자산 중 주식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2021년의 기록을 초과했다. 여기에 레버리지 ETF 투자금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단기 수익 중심의 투기 성향이 시장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ETF와 옵션, 투기 중독 확산

ETF는 더 이상 저비용 패시브 투자 수단이 아니다. 변동성이 S&P500의 400%를 초과하는 초고위험 레버리지 ETF가 속속 출시되고 있고 AI, 퀀텀 컴퓨팅, 크립토 등 ‘미래 테마’ 종목에 2~4배 레버리지를 건 상품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100개 이상의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가 출시되었으며 이 중 3/4이 단일 종목 대상 상품이었다.

옵션 시장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전체 거래량의 약 2/3가 당일 만기 옵션(ODTE)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투자라기보다 단기 베팅에 가깝다.

‘YOLO 투자’는 이제 문화처럼 자리 잡았고 개인들은 구조적 리스크보다는 심리적 확신에 더 기민하게 반응한다.

▶기관투자자 올라탄 펀드

이 같은 과열은 개인 투자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6월 말 기준, 미국 내 주요 헤지펀드들은 금융주를 사상 최고 속도로 매입했다. 펀드매니저들의 리스크 선호 지표는 25년 만에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 시장이 상승하는 동안 리스크를 회피했던 매니저들까지도 지금은 다시 위험자산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기회를 찾는 낙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놓치면 늦는다”는 집단적 압박감이 만들어낸 결정일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마지막 열차에 타지 않으면 안



투자 전문가들은 AI나 특정 테마에 편중보다는 분산의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금 비중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유동성 계획을 점검할 때다.

된다’는 공포’가 펀드의 포지셔닝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엔비디아 국가론과 착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 GDP의 약 3.7%에 해당하는 규모로 평가된다. 만약 엔비디아 국가였다면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된다. 이 기업 하나가 S&P500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 종목 중심의 지수 상승이 전체 시장의 건강성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S&P500 종목 중 97.8%는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했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대다수 종목은 정체되어 있다. 이는 과거 닷컴버블 정점의 모습과 유사한 구조적 착시를 만들고 있다.

▶부채와 크립토가 뿌린 열광

현재의 낙관을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은 ‘부채’다. 미국과 전 세계의 총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자산 가격 상승의 원천은 기업 실적이지 아니라 레버리지 확대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특히 크립토 시장은 과거와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었던 이 시장은 이제 ‘레버리지를 탑재한 주식형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비이성적 낙관에 기인한 열풍, 구조적 리스크 누적 중 ETF와 옵션 시장의 급팽창, 단기 투기의 일상화 의미 엔비디아 등 소수 종목 랠리, 건전성 무관한 착시 유도 포트폴리오 구조 점검과 리스크 노출 수준 재구성해야

크립토를 대량 보유해 상장하는 ‘크립토 트레저리 기업’이 등장하고 있고 리버스 IPO나 SPAC을 통해 우회 상장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일부 밌코인 프로젝트는 수분 내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오르기만 하면 정당화된다”는 믿음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보여주는 현상이다.

▶조용한 퇴장자와 시장의 무시

이러한 광기 속에서도 조용히 퇴장하는 이들이 있다. 2011년 비트코인을 78센트에 매수했던 초기 투자자는 최근 전량을 매도했고 워런 버핏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은행주를 정리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들의 판단에 주목하지 않는다. 매도는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매수는 열광으로 받아들여진다. 현명한 움직임은 묻히고 확신에 찬 외침만이 증폭되는 구조다.

이쯤 되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따라온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위험자산을 팔아야 하는가?” 하지만 정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금이 시장의 정점인지는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고 그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 전략의 본질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점이 아니라 현재 내 자산이 어떤 구조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아는가다. 낙관의 흐름에 편승하되 그것이 만든 착시 속에 빠지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공포를 피하고 싶은 욕구 못지않게 탐욕을 점검할 수 있는 냉정함도 필요하다.

▶균형 잡힌 대응 필요

지금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면적 후퇴도 무비판적 낙관도 아니다. 우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AI나 특정 테마 종목에 편중되어 있다면 분산의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

가 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금 비중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시장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계획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정상 시나리오와 충격 시나리오를 병렬로 상정하고 두 경우 모두에서 대응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복잡한 구조화 상품이나 고위험 ETF 대신 내실 있는 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분석해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투자란 ‘예측’이 아니라 ‘준비’다. 그리고 준비란 눈앞의 수익률이 아닌 장기적 생존을 전제로 한 구조적 대응을 의미한다.

2025년 여름의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과열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꼭 끝은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은 늘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만큼 더 깊이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점 자체보다도 그 주변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이 아닌 나 자신을 읽는 일에서 시작된다.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의 사이클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타인의 탐욕을 관찰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그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건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권 최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택 매매 및 렌트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 외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8512 Pine Spr, Severn, MD	UNDER CONTRACT	\$650,000	4/20 마켓에 올라올 예정
	1631 Cecile St, McLean, VA	SOLD	\$1,420,000	2.75% 군인 용자 그대려 이어받은 상당히 좋은 조건의 계약 성공
	1930 Battery Park, Vienna, VA	SOLD	\$1,315,000	8/18 세들먼트 완료
	2325 9th St, S, Arlington, VA	SOLD	\$925,000	세입자 퇴거 다음 날 세들먼트, 주인 (셀러) 이름으로 유틸리티 오픈할 필요 없음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OLD	\$501,000	7/1 세들먼트 완료
5/23 세들먼트 완료	여러 오피스 경쟁 돌고 돌며, 이기는 오피스 자산 있음	NEW		
5/20 세들먼트 완료		NEW		
복수 오피스 빌딩에서 리스킹 가격보다 높은 오피스 섹터, 3주만에 세들먼트 완료		NEW		
3/21 세들먼트 완료		NEW		

사업체 매매	델라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오피스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른 매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	--------	---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올 여름/가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주인 환영	7월 말~8월 초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1357 Ridgeline Rd, Fairfax, VA	NEW 즉시 입주가능 (RENT)	\$3,600 4층, 차고 2대용홈, 풀옵션, 관리비 포함, Willow Woods ES
3484 Beale Ct, Woodbridge, VA	NEW 7/20 입주가능 (RENT)	\$2,100 2층 타운홈, 방 3, 욕 1.5, 부엌 리모델링, 교통 상권 편리
6830 McLean Province Cir, Falls Church, VA	NEW 8/1 입주가능 (RENT)	\$4,300 3층, 차고 1 대용홈, 지하층 베고 전체 마루, 관리비 포함, Haycock 초-동행로우중-맥클린고
8812 Higdon Dr, Vienna, VA	NEW 8/1 입주가능 (RENT)	\$5,000 집 전체 레노베이션했음, Greensboro/Spring Hill 메트로권아파트 있음, West Brier ES - 일대 중 -
6867 Williamsburg Pond Ct, Falls Church, VA	NEW 8/1 입주가능 (RENT)	\$4,990 하이랜드 본-몽테로우중-맥클린고, West Falls Church 메트로권아파트 5분, 안전하고 좋은 단지, 99% 미루
1498 Hampton Hill Cir, McLean, VA	7/10 입주가능 (RENT)	\$5,500 방 4, 욕 3.5, 맥클린 내 유망하게 유명 있는 단지, 맥클린 다문화타운, 교통/상권 편리
3092 Southern Elm Ct, Fairfax, VA	NEW 2년 7/15 입주가능 (RENT)	주재원 마켓에 안 내 놓고 영장병사로 보려구 렌트함, 궁정에서 바로 입주 예정

그 외 30여채 더 있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김영선
연방세무사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라크마, 불교미술로 불교를 비추다

LA카운티 미술관(LACMA)이 불교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범의 세계: 아시아 전역의 불교 미술(Realms of the Dharma: Buddhist Art Across Asia·아래 사진)’ 특별전을 열고 있다. 전시회는 내년 7월까지 계속된다.

라크마는 이번 대규모 전시회를 위해 상설 소장품 가운데 최고의 불교 조각과 회화 작품을 하나로 모았다.

180점에 이르는 전시작은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에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슈미르, 네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에 이르는 불교의 확산 과정을 따라가면서 불교와 불교 미술의 국제적인 흐름을 조명한다. 또 희귀하고 아름다운 조각과 회화, 의식용품을 통해 불교 사상과 수행의 핵심 개념을 소개한다.

180점의 작품은 미술관 본관 철거와 신축 준비를 위해 약 8년 전부터 별도로 보관됐다. 2018년에는 멕시코시티 국립 인류학박물관에서 전시했고 이후 텍사스와 북서부 지역 미술관에서 순회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돼 다시 수장고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LA에서는 오랫동안 불교 미술의 걸작을 접할 수 없었다.

라크마의 영구 소장품과 개인 소장가들이 대여한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회는 테라바다(상좌부 불교), 마하야나(대승 불교), 바즈라야나(금강승), 선불교 등 불교 역사의 단계를 관련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쫓아간다. 부처의 생애와 보살의 역할, 불교의 우주관 등을 엿보거나 범(다르마)이나 업(카르마), 열반(니르바나), 진언(만트라), 수인(무드라), 만다라와 같은 핵심 개념도 탐구할 수 있다.

초기 불교 미술에서 부처의 형상은 광선이 솟아나는 것을 형상화한 소용돌이 모양의 성운 같은 추상적인 형태나 깨달음을 얻은 성스러운 장소를 의미하는 보리수, 수행의 길을 암시하는 발자국 등으로 표현된다.

부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 사후 수백 년 동안 전설과 종교적 교리가 뒤섞이고 재구성되면서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불상 형태의 구상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전시회에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형태의 불상을 볼 수 있다.

전시는 두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은 석가모니의 삶과 불교의 기본 교리와 함께 불교의 두 주요 형태인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를 설명한다.

이곳에서는 6세기 후반에 제작된 역사적 부처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부처에 대한 초기 표현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추

상적인 상징 형태였다. 빛의 발산이나 영원한 흐름을 상징하는 나선형 무늬 안의 별 모양, 보리수 나무, 부처의 발자국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나 수행의 길을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부처의 인물상은 인도 델리 남쪽 야무나 강 인근의 고대도시 마투라에서 처음 등장했고 현재의 파키스탄 북부와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있던 고대 문화권인 간다라 지역에서 발전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온 6세기 후반의 서 있는 불상으로 고요한 표정과 우아한 형태, 내면적 영성을 조화롭게 담아낸 굽타 왕조(320년~600년)의 양식을 잘 보여준다.

굽타 왕조의 지배자들은 힌두교도였지만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이 불상은 불교의 이상인 완벽한 수행자와 보편적 통치자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길고 가는 눈은 물고기를, 곱슬머리는 달팽이 껍질을, 왼쪽 어깨와 팔의 윤곽은 코끼리의 코를 닮아 자연과의 연결성을 보여준다. 12세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된 이슬람 세력의 북진도 침입 이후 불상은 티베트 사원에서 보존됐다.

자비로운 존재를 뜻하는 미륵불(마이트레야 붓다)은 대승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승불교는 수많은 부처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미륵불은 현 우주의 종말 이후 다음 우주(칼파·겁)에 출현할 부처다. 이번 전시에는 인도 북부 비하르에서 제작된 11세기 미륵상이 전시된다. 미륵불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장식 속의 작은 탑(스투파)이다.

두 번째 섹션은 상설 전시 방식과 유사하게 제작 시기와 지역에 따라 작품을 배열했다. 이곳에는 17세기 중국에서 제작된 희귀한 비로자나불 그림이 전시된다.



라크마의 특별전 ‘범의 세계’.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해 아시아 전체로 퍼져가는 여정을 예술품을 통해 따라간다.

[라크마]

동양 불교미술 정수 담은 ‘범의 세계’ 특별전

조각·회화·불구 등 180점 전시…내년 7월까지

비로자나불은 대승불교에서 우주의 진리를 상징하는 법신 부처로 석가모니는 비로자나불의 화현으로 여긴다. 비로자나불은 당나라에서 폭넓게 숭배를 받았으며 한국과 일본으로 퍼졌다. 이 작품은 보존 상태가 뛰어나며 사천왕과 지장보살을 포함한 수많은 불교와 도교 신상들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전시 작품은 불교 예술에서 수인의 역할과 의미도 짚어줄 수 있게 소개한다. 수인은 부처나 보살이 손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동작으로 깨달음의 상태나 설법의 의미를 표현한다.

범륜인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대고 원을 그리고 맞대는 것으로 법의 수레를 굴린다는 의미로 첫 설법을 상징한다. 오른손을 땅에 짚는 항마촉지인은 깨달음을 증명한다. 불상에서 자주 보는 선정인은 두 손을 배 앞에서 포개는 자세로 명상과 수행을 상징한다. 손바닥을 아래로 해 손을 펴서 내미는 시여인은 자비와 보시를, 손바닥을 정면으로 들어올리는 무외인은 보호와 평화, 두려움 해소를 표현한다. 붉은색 옷칠을 한 목재로 만든 미얀마의 부처상은 평화를 상징하는 무외인 수인을 하고 있고 왼손은 움직이는 듯 역동적이다.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의 회색 편암으로 제작한 실물 크기 부처상으로 유명한데 이 지역 부처상의 부드러운 옷자락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담겨 있다. 현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역인

간다라는 고대 실크로드 교역로에 위치해 여러 문화가 교류하던 곳으로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간다라 불상의 자연스러운 신체 표현과 부드러운 사실적인 옷 주름은 전통 인도 예술보다는 그리스 조각의 사실적이고 세련된 조형감각에서 온 것이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으로 현재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일대를 정복하면서 그리스 예술과 문화, 기술이 몰려왔고 이후 이 지역은 인도와 페르시아, 그리스 문화가 융합되는 그레코-불교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불상에도 당시 그리스와 인도 간의 문화적, 군사적 교류의 흔적이 여실히 남아 있다.

면직물에 그린 15세기 그림은 밀교의 다양한 상징을 통해 성적 에너지와 명상의 일체감을 표현한다. 그림에는 티베트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차크라삼바라와 바즈라바라하가 쌍신의 형태로 묘사된다. 12개의 팔과 4개의 얼굴, 푸른 몸을 가진 남신 차크라삼바라는 자비와 힘을 상징하며 무지와 번뇌를 깨뜨려 깨달음에 이르는 강력한 실천력을 의미한다.

붉은색 몸을 가진 여신 바즈라바라는 한 손에 해골잔을, 다른 손에 의식용 칼을 들고 있으며 무명을 잘라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의미한다. 붉은 여신과 푸른 남신이 밀착한 장면은 강력한 에너지를 담아 묘사된다. 연민의 상징인 남신 차크라삼바라와 붉은 여신 바즈라바라

히를 껴안고 있는 모습은 성적 에너지와 명상의 일체감을 표현한 작품으로, 관람자를 깊은 사유로 이끈다. 이들의 결합은 연민과 지혜라는 불교 수행의 본질을 상징한다. 밀교에서는 이러한 합일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며, 환희와 공성을 결합해 깨달음을 추구한다.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인 불구를 감상하는 것도 전시회의 큰 매력 중 하나다. 보석이 박힌 왕관과 의식용 칼, 무서운 악마의 형상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공양함 등 다양한 국가와 시대에서 사용된 불구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불구는 크게 의식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의식용구와 법당을 꾸미는 데 사용하는 장엄용구로 나뉜다. 불구의 세계는 세밀하고 다양해, 구름 모양의 금속판인 운판과 번뇌를 부순다는 금강저와 목탁, 범종, 범고, 목어, 요령, 촛대, 향로, 정병, 발우 등이 있다. 공양물을 올리는 용도의 공양함만 해도 보시함, 불전함, 복전함, 시주함, 회사함, 공덕함 등으로 세분화된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종교가 수많은 장소에서 행해진다면 교리를 형상화한 불상과 회화, 탱화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과 문화, 시대, 표현법은 달라도 공통되게 흐르는 것이 있다. 깨달음을 향한 치열함과 평온함이다.

이번 전시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실크로드를 따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현대에 이르는 여정을 예술품을 통해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다. 다양한 국가의 유물을 통해 불교의 핵심 개념과 미학적 가치, 종교적 상징성도 느낄 수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쿼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우승 학군 싱글홈

\$1,90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시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틸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틸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애플러스 부동산 / 비키리 부동산

20년 경력의 탑에이전트의 노하우가 남다른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비키리 부동산,
부동산의 모든 문제를 내일처럼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703-231-5572 (카톡 상담가능)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준리
콜드웰뱅크 베스트 부동산

라하브라 하이츠의 매력

자연의 운치와 부의 상징 도시 각광

100~400만불 커스텀 하우스 즐비

라하브라 하이츠는 산과 자연이 어우러진 조용하고 매력적인 도시이다. 이곳은 언덕 위에 위치한 커스텀 하우스와 넓은 대지, 울창한 오크 숲, 트레일이 있으며,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좁고 꾸불꾸불한 경사진 길은 운전 시 신경을 더 쓰게 하지만, 그만큼 운치 있는 최고의 뷰를 선사해 이 지역에 빠지게 만든다. 경사면에 아슬아슬하게 자리한 집들은 독특함과 매력을 더한다.

1978년에 시로 공식 승격된 이 지역은 자연과 전통적인 전원 풍경을 보존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다. 엄격한 zoning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건축 높이 제한, 벽 두께, 건물 위치와 거리 등 다양한 규제를 통해 산과 초지에 맞는 자연 친화적 구조를 유도한다. 많은 집들이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어 조용한 환경 속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1839년 멕시코 영지로 시작되어, 20세기 초에는 많은 아보카도와 감귤 농장이 활성화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성장했으며, 그 중심에는 에드윈 G. 하트가 있었다. 그는 계곡에 물을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넓은 땅에 주택을 짓도록 장려하며 자연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 라하브라 하이츠의 주민들은 자연친화적인 농사, 승마, 야외 스포츠를 즐기며, 아보카도를 기념하는 아보카도 페스티벌, 뮤직 인 더 파크, 할로윈 축제, 산타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 부활절 달걀 찾기 등 다채로운

지역 행사와 축제를 통해 커뮤니티의 활력을 키운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더 파크는 어린이 놀이터, 가제보, 피크닉 테이블 등을 갖추고 있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이다.

라하브라 하이츠의 주택 크기와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이 지역의 주택은 상당히 넓고 고급스럽다.

일반적으로 많은 집들이 1에이커 이상의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넓은 대지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주택의 크기는 대략 3000에서 5000평방피트 정도의 크기가 일반적이지만, 그보다 더 크거나 작은 경우도 있다. 다양한 스타일과 설계의 커스텀 하우스들이 많이 있어, 각 주택이 고유의 개성과 특성을 가진다. 주택 가격은 주로 100만~400만 달러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다.

라하브라 하이츠는 많은 한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지역이다. 풀러턴 한인타운과 가까워 차로 10~20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어,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다양한 한국 먹거리와 문화도 즐길 수 있다.

한인타운이 가까워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라하브라 하이츠는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찾는 주거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 가이드



윤소야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

2025년 하반기 내 집 마련 전략

공급부족 지속, 이자율 변화 불투명

무리한 대출보다 다양한 상품 비교를

2025년 상반기 남가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높은 금리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꽤 오랫동안 동결했음에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대 중후반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월 상환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 승인 기준도 까다로워져 집을 사려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LA와 오렌지카운티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다. LA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은 90만 달러 안팎을 거듭했고, 오렌지카운티 역시 100만 달러선을 지켰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오픈하우스마다 수십 명이 몰려들고, 다중 경쟁입찰이 일상적이었으나, 이제는 몇 팀 정도만 방문하거나 셀러가 클로징 비용 등 커미션을 일부 부담하거나 가격을 인하해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높은 금리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함께 “혹시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바이어들의 관망세가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들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임대료가 일정 부분 상승하긴 했지만, 6%대의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투자 수익률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그렇다면 다가올 2025년 하반기는 과연 어떤 국면을 맞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반기 역시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A와 오렌지카운티의 다가구 주택이나 중밀도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실제 공급 물량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려면 적어도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금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반기 내내 Fed는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남가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이어의 협상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반기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된 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예산 검토와 대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6%대 고정금리 상황에서는 매달 상환 부담이 상당히 때문에, 월별 상환액과 총비용을 면밀히 계산해 적정 매입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했다가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다양한 대출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월 100만원 낼테니...” 전세대출 한도 줄자 ‘반전세’ 급증

6·27 규제로 기존 계약 갱신에 난항
보증금 낮추는 대신 월세로 선회
“공급 감소로 월세액 오를 가능성”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84㎡형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 계약은 기존 전세 보증금 9억원을 6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월 100만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원하는 금액만큼 전세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입자 입장에서선 어쩔 수 없이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돌리게 되는데, 목동 주변을 떠날 수 없으니 시중금리보다 비싼 월세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엔 이런 세입자가 많아지다 보니, 집주인이 먼저 월세로 돌리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빌라 전세사기의 후폭풍으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중심으로 이뤄지던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 계약 중 전세가 반전세(또는 월세)로 바뀐 건수는 220건으로 전체의 5%였다. 1년 전엔 159건(3.6%)이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3일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343건으로 대출 규제 발표날인 지난달 27일보다 2.1%(512건) 줄었다. 월세 매물은 3.4%(653건) 증가한 1만9449건이었다.

우선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축소된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6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데 이어, 이달 21일에는 80%로 또 낮췄다. 전세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해당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기존에는 보증기관이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1억원을 대신 갚아줬지

만, 앞으로는 8000만원까지만 갚아준다는 의미다. 결국 금융사의 위험 부담이 커지다 보니 대출 한도가 주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갭투자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영향도 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얻는 조건으로 나오는 대출이다. 통상 신축 아파트에선 분양권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 전세 매물을 많이 내놓는다.

현재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들의 매물을 보면 월세가 전·월세 매물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은혜 기자

REALTY1 MARYLAND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주택 리스형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UNDER CONTRACT

Rockville MD

싱글홈 \$759,000 방4, 화3

COMING SOON

Elkridge MD

타운홈 \$559,000 방4, 화3/1, 차고1

Bethesda MD

싱글홈 \$1,295,000 방4, 화2/1

UNDER CONTRACT in 3 days

Nottingham MD

싱글홈 \$449,000 방3, 화2

Gwynn Oak MD

싱글홈 \$419,000 방4, 화3

COMING SOON

Columbia MD

타운홈 방3, 화2/1, 차고1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3, 화3.5/Car Porch

RENTED IN 3 DAY

Columbia

월 \$3,100 타운홈 방5, 화4

RENTED

Odenton

월 \$3,000 타운홈 방4, 화4

RENTED

Bowie

월 \$2,800 타운홈 방3, 화2

RENTED

Pasadena

월 \$2,400 타운홈 방3, 화2.5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월드뱅크카드서비스]

BEAUTY SUPPLY 전용 POS

“매출증대!
MARKETING
고객폰으로
무료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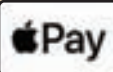
초기 구매
비용 없음

최신
POS 시스템



- ◆ 간편하고 쉬운 POS
- ◆ 재고 관리
-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 ◆ CUSTOMIZE 맞춤형 POS
- ◆ “MARKETING 고객폰으로 무료전송”

※ POS / ATM / 신용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WBS

WORLD BANKCARD SERVICES



24시간 365일 친절환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아깝다 0.18초! 황선우,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4위

황선우,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2022년부터 이어진 메달 행진 멈춰
“아쉽지만 개인 최고 기록에 근접”

한국 수영 단거리의 ‘간판’ 황선우(22·강원도청)가 1년 만에 나선 세계 무대에서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확인했다.

황선우는 지난 29일 싱가포르 세계수영선수권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세계수영연맹(WA) 세계선수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44초72에 터치패드를 찍어 4위를 차지했다. 그는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 은메달, 2023년 후쿠오카 대회 동메달에 이어 지난해 도하 대회에선 금메달을 목에 건 ‘디펜딩 챔피언’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4회 연속 입상에 도전했지만, 0.18초 차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황선우는 “아쉬움도 남지만, 개인 최고 기록에 근접한 성적이 나와 나쁘게만 보진 않는다”며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황선우는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3월 남자 자유형 200m 국가대표 선발전 기록이 1분45초40으로 저조했던



1년 만에 경기에 나선 싱가포르 세계수영선수권 200m 결선 후 숨을 몰아쉬는 황선우.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4회 연속 입상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탓이다.

한국 수영대표팀 김효열 총감독은 “황선우와 김우민이 지난해 12월 기초 군사훈련을 다녀오느라 한 달 넘게 물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그 후 ‘물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메달도 중요하지만,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이번 대회 첫째 목표”라고 말했다.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황선우는 녹

슬지 않은 기량을 뽐냈다. 지난 28일 준결선을 2위로 통과했다. 결선이 아닌데도 올 시즌 그의 베스트 기록인 1분44초84를 찍었다. 하루 뒤 결선에서는 이 기록을 다시 0.12초 단축했다. 포디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수년간 국제무대를 누비며 쌓은 경험이 실전에서 빛을 발했다.

황선우에게 이번 대회는 명예 회복

브리티시 여자오픈 김효주에 시선집중

직전 대회 준우승 등 상승세

한국 여자골프의 에이스로 활약 중인 김효주(30)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 트로피를 품에 안을까.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유럽 일정을 마무리할 브리티시 여자오픈이 31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 미드 글레모건의 로열 포트콜 골프장(파 72·6748야드)에서 개막한다. 총상금 950만 달러(약 131억원)인 올 시즌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메이저대회다.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가 김효주다. 지난 3월 포드 챔피언십 우승을 비롯해 13개 대회에서 5차례 톱10을 기록하는 등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적을 냈다. 최근 흐름도 좋다. 바로 직전에 출전한 스코티시 여자오픈에서 준우승했다. 스코티시 여자오픈이 열린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던도널드 링크스는 이번 대회장인 로열 포트콜과 흡사한 영국 특유의 전형적인 바닷가 코스다. 북대서양의 거센 바람이 불고 날씨도 종잡을 수 없다. 비슷한 코스에서 좋은 성적을 낸 김효주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4월 세브론 챔피언십 공동 준우승 이후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컷 탈락(US여자오픈)과 기권(KPMG 여자 PGA 챔피언십), 공동 31위(에비앙 챔피언십)로 부진한 터라 개인적인 의욕도 남다르다.

김효주의 경쟁자로는 신에 돌풍을 일으키는 로티 워드(21·잉글랜드)를 꼽을 수 있다.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깜짝 3위에 올라 LPGA 투어 시드를 획득한 워드는 곧바로 프로로 전향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인 여자골프 세계 3위 리디아 고(28·뉴질랜드)와 1위 넬리 코다(27·미국)와 2위 지노 티피쿰(22·태국) 등 정상급 선수가 대거 출전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베테랑 신지애(37)와 김세영(32), 고진영(30), 유해란(24) 등이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뛰는 마다솜(26), 홍정민(23), 방신실(21)도 출전한다.

고봉준 기자



바르셀로나 감독 “야말, FC서울전 뚝다”

오늘 오후 8시 상암서 프리시즌 경기
주축 선수들 의무출전 조항 있어
플리크 감독 “FC서울, 잘하는 팀”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라민 야말(18·스페인)이 FC서울을 상대로 골 사냥에 나선다. ‘50년에 한 번 나올 재능’으로 불리는 야말은 리오넬 메시의 등 번호 10번을 물려받은 스타 플레이어다.

바르셀로나의 한지 플리크(60·독일) 감독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한 아시아투어 기자회견에서 “야말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야말은 FC서울 경기에 출전할 거다. 모든 경기가 테스트이자 부족하고 채워야 할 부분을 확인할 기회다.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야말의 출전을 확인했다.

15년 만에 방한한 바르셀로나는 31



FC바르셀로나의 한지 플리크 감독(왼쪽)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경기를 갖는다.

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다음 달 4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다. 2019년 유벤투스(이탈리아)의 방한 경기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의 ‘노쇼 사태’로 인해 국내 팬의 공분을 샀다. 이번에는 야말 등 바르셀로나 주축 선수의 의무 출전 조항이 계약에 포함됐다고 한다.

2024~25시즌 18골·25도움을 기록하

며 바르셀로나의 스페인 라리가(정규리그), 국왕컵, 슈퍼컵 3관왕에 앞장선 야말은 지난 27일 일본에서 열린 비셀 고베와 친선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전을 소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플리크 감독만 참석한 채 진행했다.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독일 대표팀 감독을 거쳐 지난해 5월 바르셀로나 사령탑에 부임한 플리크 감독은 “바르셀로나 스타일의 축구

를 최선을 다해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야말과 ‘득점 기계’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37·폴란드), 브라질 국가대표 윙어 하피냐(29) 등이 이번에 방한했지만, 기자회견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29일) 방한한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 기자회견에 에디 하우 감독과 수비수 뎀 번이 참석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바르셀로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가브리엘 마르티네스는 “경기를 앞두고 있어 선수 참석이 어려웠다.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플리크 감독은 FC서울에 대해 “제시링가드(33·잉글랜드)가 있다는 걸 안다.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마커스 래시퍼드(28·잉글랜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시절 동료인 링가드와 맞대결할지도 관심사다.

박린 기자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로컬 검색때..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저렴한 비용
- 2.편리한 플서비스
- 3.맡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Roberta: Oh my God! This place is so beautiful!
로버타: 아 세상에! 여기 너무 아름답다!
Doug: Isn't it? Michiko and I have been coming up here to camp for ages.
더그: 그렇지? 미치코와 나는 오랫동안 여기 올라와서 캠핑을 했어.
Roger: And the river goes right by our tents! I love it!
라저: 그리고 우리 텐트 바로 옆으로 강이 흐르네! 정말 좋다!

Michiko: How was the drive up? Did you hit any traffic?
미치코: 운전해 오는 건 어땠어? 교통체증에 걸렸어?
Roger: A little but not much.
라저: 조금 그래도 많이 막히진 않았어.
Roberta: I'm glad I got off work early today.
로버타: 난 오늘 일을 일찍 끝내서 다행이야.
Doug: The drive up for us was a breeze.

beat the traffic: 교통체증을 피하다

(It's Friday afternoon and Roberta and Roger have joined

Doug and Michiko at a mountain campsite for the weekend--)

(주말을 맞아 로버타와 라저가 금요일 오후에 산 속의 캠핑장에서 더그와 미치코와 합류한다)

더그: 운전해 오는 건 조금도 안 어려웠어.
Roger: Well that's because you left on Thursday.
You beat the traffic.
라저: 그러니까 그게 목요일에 출발해서 그래. 교통체증을 피해서 온 거지.
Michiko: Would anyone like a snack?
미치코: 누구 간식 먹을 사람?
Doug: We're having trout for dinner. Michiko and I caught some trout in the river yesterday.

더그: 저녁은 송어야. 미치코하고 내가 어제 강에서 송어를 잡았거든.

기억할만한 표현

- ▶ for ages: 오랫동안
"I haven't gone bowling for ages."
(볼링 치러 간지도 정말 오래됐다.)
- ▶ to hit (any) traffic:
(구어체) 교통체증에 걸리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열쇠

(1) 집안 살림에 쓰는 장롱·책장·탁자 따위 (5)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일 (6) 원료나 제품이 처음 생산된 땅. 수입 품목은 ~ 표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7) 목표물을 향하여 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고 목표물에 맞지 아니하면 되돌아온다 (8) 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衣冠). 벼슬이나 직위 (9) 문에 바르는 질긴 종이 (11) 쌀과 그 밖의 곡식을 파는 가게 (12)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줌 (14) 서럽게 느껴지는 마음. 이 ~ 저 ~ 해도 베고픈 ~이 제일 (15) 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 (16) 한 해의 가장 추운 때의 이십사절기. 소한과 ~만 지나면 봄기운이 돌아온다 (17) 끝에 솜을 말아 붙인 가느다란 막대 (19) 오르간 (21) 신문 따위를 날마다 발행함. ~ 스포츠 (22) 앞가슴에 흰무늬가 있는 곱. 지리산에서 살고 있죠 (24)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 (25) 음식을 차려 놓는 사각형의 큰상 (26)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벽 (27) 배를 밀어 갈 때에 쓰는 긴 막대. 뚝대도 아니 달고 ~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윤극영) (28)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이

세로열쇠

(2) 야구에서, 앞서 던지던 투수를 대신하여 경기 중간에 나가서 던지는 투수 (3)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창. 포크 (4) 철없는 어린이 (5) 젊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악의 없이 벌이는 싸움 (10) 조선 시대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자가 가지고 다녔던 패. 16세 이상의 남자라면 기본 인적사항이 적힌 ~를 의무적으로 차고 다녀야만 했다 (13) 자기 뜻대로 늘어나게도 오므라들게도 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뽕동이. 손오공은 ~을 휘두르며 요괴들에게 달려들었다 (14) 눈과 함께 휘몰아치는 차가운 바람. 한겨울 ~ 속에서도 청정한 잎을 지키는 대나무 (17) 서로 마주 보는 자리에서 사무를 넘겨주고 넘겨받음. 흔히 쓰는 말로는 악수 교대라고 하죠 (18) 금, 은, 동 따위로 둥글납작하게 만든 것 (20) 화려한 금당 불상과 단청으로 단장하여 장엄한 절집. 장하던 ~/잔 채 되고 남은 터에/이루고 또 이루어 오늘을 보이도다/홍망이 산중에도 있다 하니/더욱 비감하여라(이은상) (22) 격식을 갖추어 밥상하 나를 차리도록 만든 한 벌의 그릇. 침철 ~ (23) 짧은 담배대

스도쿠

		9				1	6	5	
1	5	8	7	6	3	4	9		
		6	3			5	8		
					4		2	3	9
9				6	1				
8				9			7		1
		8				9	1	4	6
4	2								
5	1			3	7	4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2	6	4	7	3	9	1	5
5	7	3	9	8	1	6	2	4
9	4	1	6	5	2	7	8	3
1	9	7	2	3	6	5	4	8
4	8	5	7	1	9	2	3	6
6	3	2	8	4	5	1	7	9
7	1	8	5	6	4	3	9	2
2	6	4	3	9	7	8	5	1
3	5	9	1	2	8	4	6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9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
료
과
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495

395

Little River Tnpk.

중양일보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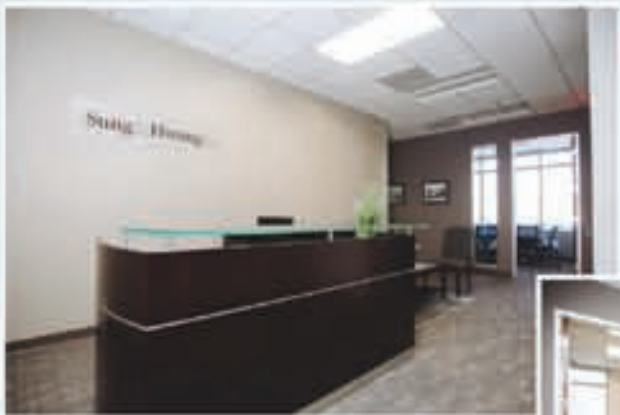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 민사소송
 -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 보험
- ♦ 손해배상
 - ♦ 의료사고
 -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Eccleston & Wolf
MD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7월
구
인
광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571-212-3082

매매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오솔길, 산길 걷기

●6마일/2시간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 ~ 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 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컷시티 Cafe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일요일 가능한분, 유/무 경험자
443-386-0515

엘리컷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
장, 캐쉬어를 모집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
쉬)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서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펠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 약간명, 리셉서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풀타임, 엘리컷시티
410-926-3200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풀/파트타임, 베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 분
410-926-3200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
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 방 렌트

메릴랜드 한오버 이층방 & 베이스먼트 방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컷시티 롯데역 타운홈 지하방하나
옷장, 매트리스, 저녁 식사 제공, 유포 \$500
443-522 -7777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
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가까
운 싱글홈 이층방 렌트, 즉시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곳에 위치
한 싱글홈 이층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
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
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뉴그랜드마트 근
처, 욕실달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 하나(출입구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 저렴한 임
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패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타임으로 일 하실분을 모십니
다. 캐시어하시면서 기술 배우실분 환영
703-691-1993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매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여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매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서니스트(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universa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employeehire13@gmai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제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매난데일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매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매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타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매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
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매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찰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서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찰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매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컷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매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아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
하실 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
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
식점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임플란트

•신경치료

•교정

•발치

•크라운

•임플란트 틀니

•충치치료

•전체/부분 틀니

•일반치과

•미용치과

•잇몸치료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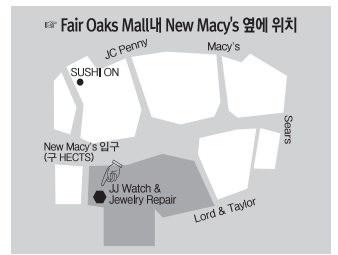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패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중앙일보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첼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라썸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

파/폴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라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첼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 가능합니다.

571-422-7189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 렌트

맥클린에 위치한 싱글하우스 전체 렌트 하실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 4, 화장실 3, 차고 2, 8/1일부터 입주 가능

571-277-7758

애난데일 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

지하 전체 렌트, 방 3, 화 2, 키친, 리빙룸, 세탁

기, 입구 별도, 주차 1칸, 최근 전부 새로 수

리하였으며, 전화 하면 사진 보여 드림

703-395-4380

센터빌 파월 초, 2 car 벽돌 타운하우스 렌트

\$3,400 방 3, 화 2.5, 텍, Faircrest, 루트

29/50/286/66/28, 9월 1일 입주

▶571-239-6054

스프링필드 타운하우스 End Unit \$3,000

방 3, 화 3.5, 집 전체 나무마루,

Walkout Basement, 새 페인트, 새 주방기

기, Granite counter Top, SS appliances,

새 HAVC, Fenced back yard, 넓은 Deck,

밝고 환한 집, 좋은 이웃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 3/화 3/차고 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 3, 화 3.5, 2 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 다수, 콜린 파월 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 3, 화 3.5, 2 car, 전부 마루, 주차 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 3, 화 3.5, 2 car, 주차 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3,600 2020년에

지은 새단지 새 타운하우스, 방 4, 화 5 (full 3,

half 2), 4층 구조, 탁트인 리빙룸, 넓고 고급

스러운 부엌, 2 Car garage, Loft top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 콘도 \$2,450

방 3, 화 2, 세탁기, 건조기, 전부 업그레이드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새 창문)

고급 스크린 나무마루, Fence 있는 뒷마당, 남

향, 밝은 집,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 3, 화 3.5, 차고 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 4, 화 3.5, 차고 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 HS)

2100 sqft, 방 4, 화 3.5, \$3200

470-485-1875

첼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 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 하이,

웨스턴,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콘도 렌트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1층, 방 3, 화 2 \$2,500

571-318-1119

애난데일에 위치한 밝고 환한 콘도 렌트

방 1, 화장실 1, 계단 없는 1층, 나무 마루, 넓

은 리빙룸 \$1,600 (물값 & 가스값 포함)

▶703-477-3114

센터빌 밝고 환한 콘도 \$2,450

방 2, 화 2, 업데이트된 부엌, 리모델링 화

장실, 고급 스크린 나무 마루, 탁트인 부엌과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아담한 발코니, 세

탁기, 건조기, Gated Community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 콘도 \$2,450

End Unit, 2층 구조, 모두 새 단장,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새 창문,

Costco, Walmart과 가까운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 1, 화 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

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 2, 화 2.5, 차

고 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층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 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 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장로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스프링필드 (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스쿨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방 3, 화 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 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 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

용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 1, 화장실 1 렌트

인터넷 유포 \$800

703-577-3421 (문자요망)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싱글홈 이층 방 렌트, 즉시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 1, 화 1, 간단 식사,

잠만 주무실분,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571-243-6295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

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 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 렌트, 조지메이

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

터넷 유포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래층 전체 렌

트 방 2/새 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

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워크 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 1, 화 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 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

트, 주차 1칸

703-965-2343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

703-622-203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 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애쉬번 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2012년, 방 3, 화 3.5, 최고 학교, 델레스 공향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 옆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교, Dulles Airport
RT 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 건조기, 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텍,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1, 차고2, 패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밝고 이쁜 집, 나무 마루, 넓은 뒷뜰
▶703-899-8999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렌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너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 헌트 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욕실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경 닥터
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저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상업중심 미장원 렌트 \$3,300/m
1,300sf,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상업중심 미장원 은퇴, NEW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92 차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캐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중고매매/기타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해 상태 좋음, 필요한
신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고가구 차단스 3 피스셋 \$4000 주고 구입.
밤색, \$1000 불에 사가실분. 상태 양호
703-939-2737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요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
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랫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
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밑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텍 메
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 워시,핸디맨 서
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우니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방,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텍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래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방,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방,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방,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집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
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 /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벌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원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독자가 행복 해진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저

◆ 워터히터 / 물세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양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톱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소품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무더운 Summer 여름 시원한 핫딜

핫딜 여름 이벤트 6.23(월)~7.31(목)

99불 이상 구매시 경품이 와르르~

이벤트 기간중 핫딜에서 **\$99이상 구매하면 자동 응모!**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R.O.U.N.D LAB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자작나무 수분선크림

4팩세트 특가

50ml 4팩세트 특가! 뷰티 유저에게 주목받는 No.1 선크림

청량한 기운 머금은 인제 자작나무 수액의 촉촉한 수분담은

라운드랩 자작나무수분선크림

수분길을 열어주어 하루종일 촉촉하게!

~~\$88~~ **\$4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Three open boxes of A-El Sachang Balyeong Gongjin Dan are displayed on a light-colored surface. Each box is dark brown with a black interior. The boxes are arranged in a row, with the smallest on the left, medium in the middle, and the largest on the right. Each box contains a grid of small, round, golden-brown pills. A white certificate of quality is placed inside each box, showing the product name and a seal. A gold circular seal with the text '하나다증정 1+1' (Hanada Certificate 1+1)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전통 한방 처방, 공진단+현대 발효 과학의 프리미엄 건강식품

항암 성분, 홍삼의 57배 중국 황제에게 진상되던 황제의 보약

야엘 사향 발효공진단 10환, 30환, 50환
1+1빅세일

10환

(10환타)

\$500

30환

(30환타)

\$1400

50환

(50환타)

\$2160

**무료
배송**
Free Shipping

7無 첨가, 건강한 조미료로 깊은 맛의 어떤 요리에도 OK!

19가지 자연재료를 한알에 담은 개별포장 코인 육수
요리의 완성, 코인육수 **명품한알**

3개세트 60알

~~\$51~~ **\$25**

6개세트 120알

~~\$102~~ **\$35**

MINIMALISM,
**DUAL
PRESSURE,**
EASYOPEN,
**DIAMOND
COATING**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만능찜,
슬로우쿡,
볼림&뜸
알고리즘으로
맛있게!

[쿠첸] 디자인과 기능의 완성도를 높인 핏Fit한 밥솥

이지 오픈 핸들, 다이아몬드 코팅 내솥, 미니멀리즘 디자인

CRS-FWK 듀얼프레서 전기압력밥솥

6인 CRS-FWK0640WUS	\$199.99	10인 CRS-FWK1040WUS	\$219.99
-----------------------------	-----------------	------------------------------	-----------------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이글루 쿨매트 냉감성, 속건성, 경량성, 통기성, 간편세탁까지!
 우수한 원단, 독일산 프리미엄 시직기계로 국내 100% 생산
일월 듀라론 냉감 쿨 매트 (간편세탁)

King	\$99	Queen	\$89	Full	\$69
-------------	-------------	--------------	-------------	-------------	-------------

**무료
배송**
Free Shipping

By Make Up Artist *FIVE*

타고난 결을 빛내는 스킨누더쿠션으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모이스처 핏 텍스처, 클리어 커버링, 내추럴 글로우 & 래스팅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리필 포함 (7가지 셰이드)

\$**39.99**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중앙일보를 추천해주시면
\$100을 드립니다.

Gift Card
\$100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해서 신규 구독 하시면,
소개해주신 독자분께 \$100 마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The JoongAng The Korea Daily
지금 전화주세요. 213-368-2600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자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자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를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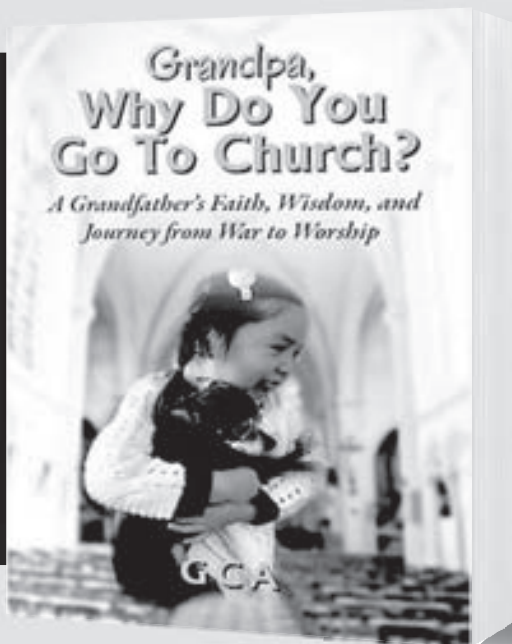
문의

(832)605-4890 · (281)501-2623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

미국에서 자란 영어권 손주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는 저자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개인적인 메시지로 집필한 책입니다.

또한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줍니다.

이 책에 담긴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솔한 지혜는,

모든 젊은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자선 기부와 교회 공동체 속 연결의 힘이

어떻게 사람을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지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존 또는
Barnes and Nobles에서
책이름 Grandpa,
Why Do You
Go To Church? 로
검색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Book원하시는 분께 이메일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Book신청 이메일 주소: jchung1@me.com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